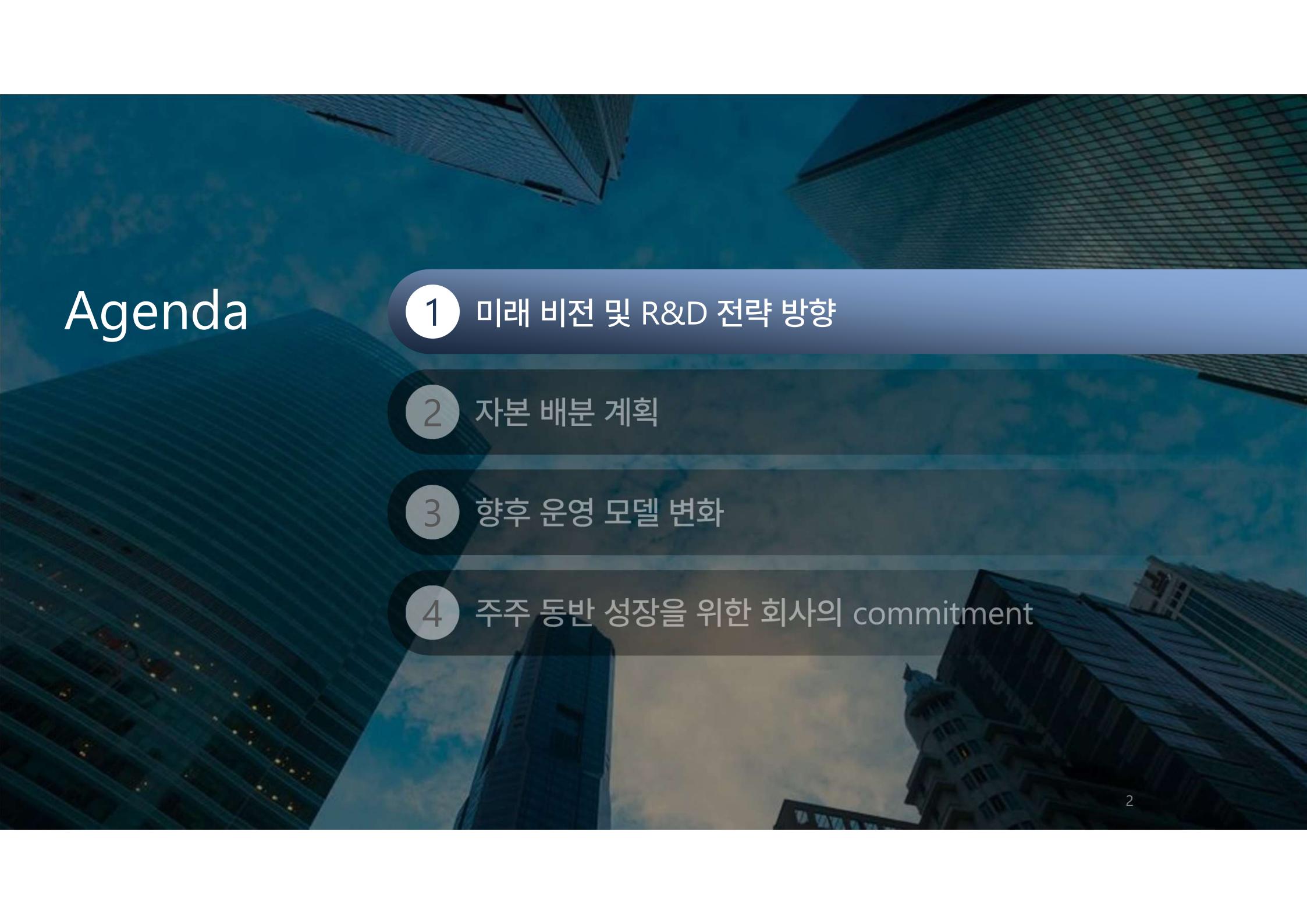




OSCOTEC 2026 INVESTOR DAY

Translating Science into Medicine





Agenda

1 미래 비전 및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계획

3 향후 운영 모델 변화

4 주주 동반 성장을 위한 회사의 commitment



회사 현황 | 국내 최초 美FDA 승인 항암제 개발사로 韓·美 양국에서 후속 신약 개발 중

연혁

1998년 – 오스코텍 설립
 2007년 – 오스코텍 코스닥 상장
 2014년 – 원천기술 (GENO-K) 활용 Lazertinib 개발
 2015년 – Lazertinib (GNS-1480) 유한양행에 라이센스 아웃
 2020년 –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ADEL-Y01) 공동연구 계약
 2024년 -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FDA 승인
 2025년 – ADEL-Y01 사노피에 라이센스 아웃

주요 사업

신약 연구개발 (항암제, 섬유화질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주요 성과

Lazertinib (GNS-1480) 기술 수출 (유한양행, 유한양행 → 얀센)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FDA 승인 획득
 ADEL-Y01 기술 수출 (공동연구 계약, 아델 → 사노피)

주요 파이프라인

- 폐 섬유화 표적치료제 (GNS-3545)
- 신장 섬유화 표적치료제 (OCT-648)
- 항내성 항암제 (OCT-598, ONC1~3)
- DAC 항체-분해약물 접합체 (DAC1~3)

주요 리더십

윤태영 (오스코텍 R&D 대표이사), 이상현 (오스코텍 경영대표이사), 곽영신 (오스코텍 CTO),
 고종성 (제노스코 R&D 대표이사), 김세원 (제노스코 경영대표이사)

임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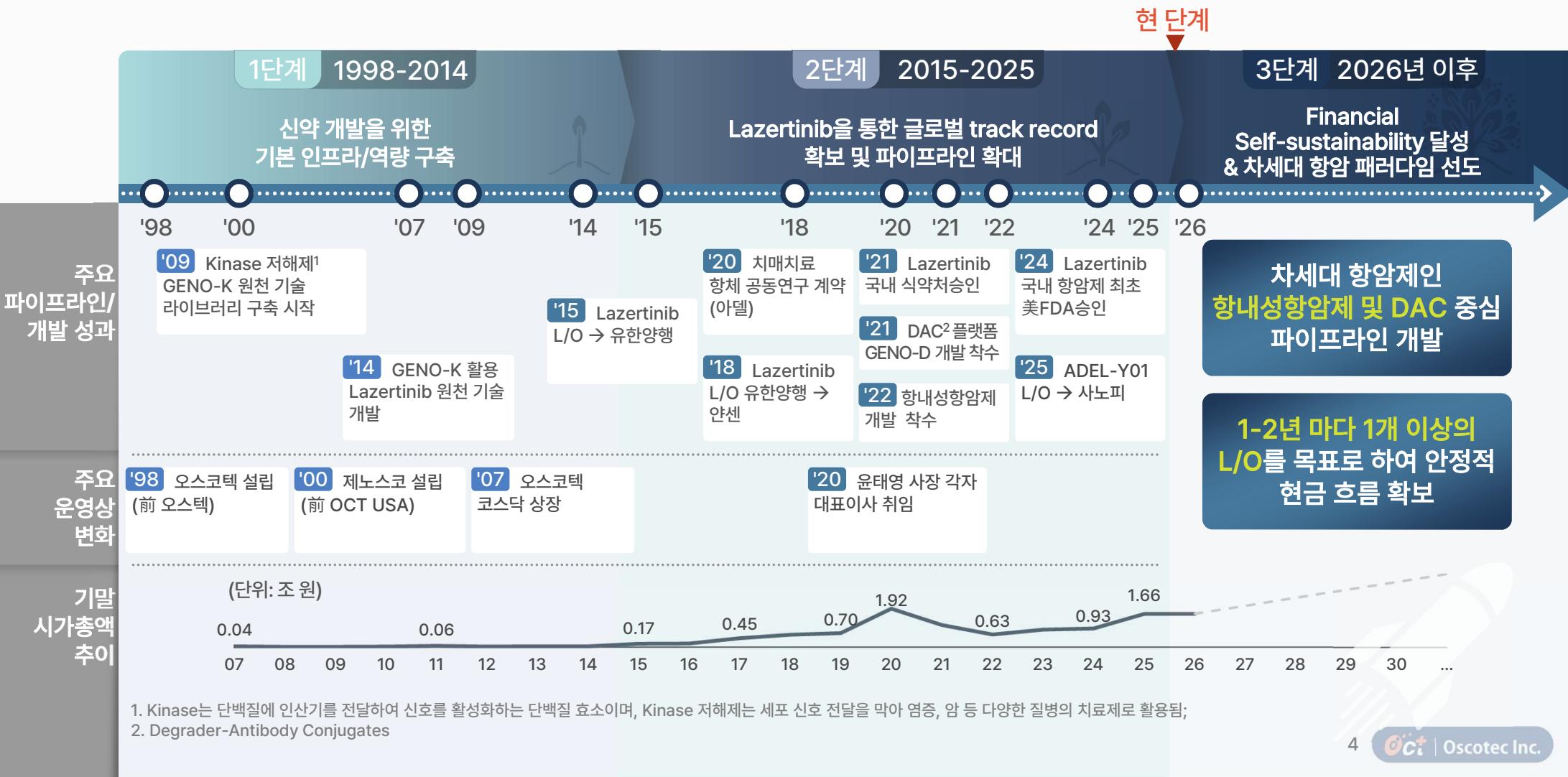
- 오스코텍 - 57명 (R&D 인력 33명)
- 제노스코 – 34명 (R&D 인력 20명)

주요 사업장 소재지





성장 Story | 신약개발 역량 및 Lazertinib의 안정적 수익 기반, 다음 단계로 도약 준비





비전 |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비전

R&D
지향점핵심
역량 및
강점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원천 내성차단형 차세대 항내성 항암제 (ACART)

암세포가 내성을 획득하기 전 근본 원인을 차단해 암의 재발을 억제,
기존 항암제의 지속성 한계를 해결

차세대 혁신 기술력

- ✓ 국내 최초 美FDA 승인 항암제 **Lazertinib** 원천기술 개발 (기술평가등급 AA⁴)
- ✓ 세계 최초 내성 특화 Hit & Target Pair 발굴(ACART⁵) 플랫폼
- ✓ 차세대 DAC '3중 안전장치' 플랫폼
- ✓ 신규 파이프라인 10개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 (FIC⁶) 8개)

ADC¹와 TPD²의 융합으로 부작용을 낮춰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DAC³ 플랫폼

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3단계 안전장치를 탑재,
정상세포 독성을 최소화하여 기존 ADC부작용 한계 극복

World-class R&D 인력

- ✓ 국내 Top-tier급 R&D 조직 보유 (총 53명 중 47명의 석박사 전문인력; 3년 이내 R&D 인력 30명 증원 계획)
- ✓ 글로벌 리딩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톤 Ecosystem** 활용 및 10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KOL) 자문단 구축

Self-sustainable한 재무구조

- ✓ Lazertinib 매출로 R&D를 충당할 수 있는 Self-sustainable 재무 구조
- ✓ 향후에도 1-2년에 1건 이상의 L/O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 강화



1. Antibody Drug Conjugate; 2. Target Protein Degrader; 3. Degrader-Antibody Conjugate; 4. 기술평가는 AAA~D의 열 가지 등급이 있으며 AA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기술력이 동종기업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 AA이상은 전체의 6% 미만으로 매우 드묾, 본사는 Lazertinib, GENO-K로 기술 평가를 받음;
5.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6. First-in-Class



단계적 R&D 추진 전략 | 글로벌 상용화 매출 및 1-2년에 1개 이상의 L/O를 통한 단기 수익성 및 중장기 혁신 지속성/안전성 강화 기술을 겸비한 차세대 항암 리더

구분	역할/포지셔닝	세부 파이프라인		
1 초단기 제품/ 파이프라인	Lazertinib 글로벌 성공 및 self-sustainable 재무구조 정립	Lazertinib	✓ 폐암 항암제의 글로벌 판매를 통한 안정적 현금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글로벌 항암신약 상용화 경험으로 신뢰 구축 	
2 단기 파이프라인 ('26-'27년 L/O 목표)	추가 L/O 통해 Self-sustainability 강화	ADEL-Y01 GNS-3545 OCT-648	✓ 알츠하이머 항체치료제(인지저하의 원인인 Tau 단백질 근본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1상, '25년 12월 사노피에 L/O (총 \$1.04B, 계약금 \$80M) ✓ 특발성 폐섬유증 표적치료제(섬유화와 염증을 동시에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1상, L/O('27)를 통한 Self sustainability 강화 ✓ 신장 섬유화 FIC 표적치료제(섬유화 발생 직접적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상, L/O('27)를 통한 Self sustainability 강화 	
3 중장기 파이프라인 ('28년 이후 L/O 목표)	항암 치료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강화한 항내성항암제 및 DAC 전문 차세대 Oncology R&D Leader	OCT-598/ONC1~3 DAC DAC1~3/PKMYT1	✓ 원천 암세포 내성차단형 4세대 First In Class 항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고수익의 암종 및 타겟 확장 가능한 시장 기회 선점 ✓ 3중 안전장치(Triple-lock) 기술 기반, 기존 ADC 대비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증된 기술 기반, 안정적 & 단기 수익화 지향 	



성과 및 미래 파이프라인 | 향후 1-2년에 1개 이상 L/O 예정; 단기에는 GNS-3545 (폐섬유증) 및 OCT-648 (신장 섬유화) L/O 예정

	Indication	차별성	L/O 목표 시점	Commercial Partner
1 초단기 파이프라인	Lazertinib	폐암 EGFR 돌연변이 내성을 극복하는 EGFR 표적치료제(글로벌 상용화 중)	L/O 완료	J&J
	ADEL-Y01	알츠하이머 타우 단백질을 표적하는 차세대 항체 표적치료제(임상 1상)	'25 L/O 완료	Sanofi
2 단기 L/O 파이프라인	GNS-3545	특발성 폐섬유증 Geno-K기술을 활용한 ROCK2 효소 억제 표적치료제(임상 1상)	'26~'27년 타겟	글로벌 MNC/바이오텍 3사 논의 중
	OCT-648	신장 섬유화 NUAK1 타겟 섬유화 차단형 표적치료제(전임상)		글로벌 빅파마 관심 표명 중
3 중장기 파이프라인	OCT-598	EP2/4 이중저해 항내성 항암제(임상 1상)	'28년 이후 타겟	글로벌 바이오텍 & MNC
	ONC1	NUAK1/2 이중저해 항내성 항암제 (후보물질)		
	ONC2, 3	내성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항내성 항암제 (undisclosed)(발굴)		
	ONC4~10	신규 타겟, 신규 Modality, 혁신 플랫폼 등 공동개발		
	DAC1	삼중음성 유방암		
	DAC2	소세포 폐암 암세포 특이적 약효 유도로 안정성이 강화된 차세대 DAC 치료제(선도)		
	DAC3	전립선암, 간암		
	PKMYT1	난소암, 췌장암 GENO-D 기술 적용 단백질 경구용 분해 치료제(선도물질, FIC)		

Note: 기타 파이프라인 (추가 비용 투입 없이 기술 이전 예정); Cevidoplenib (자가면역질환제; 임상2상 완료), Denlivontinib (표적치료제; 임상1상 완료)



1&2) 초단기 및 단기| 초단기 (~'26년)는 Lazertinib 및 ADEL로 수익을 확보하고, 2년 내 단기 파이프라인 2건의 L/O로 추가 수익 창출 전망

구분

파이프라인
약물기전 및
모달리티Commercial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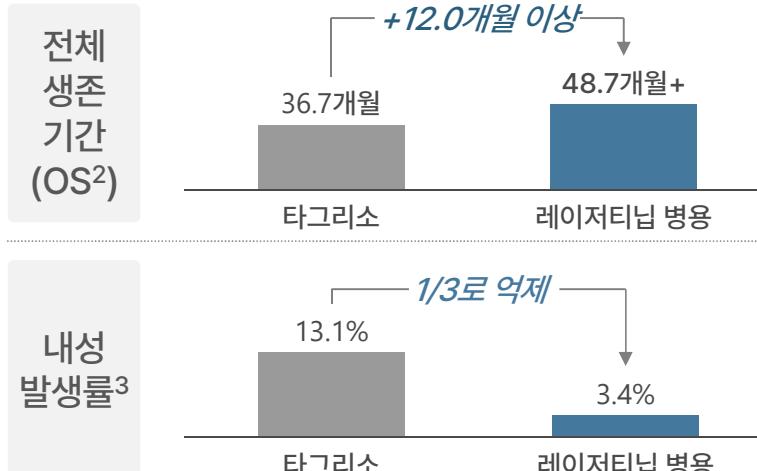
1 초단기 파이프라인		2 단기 L/O 파이프라인	
1-1 Lazertinib	1-2 ADEL-Y01	2-1 GNS-3545	2-2 OCT-648
 <p>폐암 표적 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글로벌 항암신약 상용화 ✓ 3세대 EGFR 억제제 – 내성을 유발하는 T790M 변이까지 억제 가능 ✓ '15년 유한양행에 L/O ✓ '26년부터 수익 실현 본격화 	 <p>알츠하이머 항체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 증상 완화가 아닌 병의 원인이 되는 Tau 단백질을 근본적으로 차단 ✓ 임상1상 진행중 ✓ '25년 Q4 사노피에 L/O ✓ 약 550억원 Upfront 매출 (총 value 약 7,200억원) 	 <p>폐섬유증 표적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화와 염증 동시 억제 ✓ 다양한 적응증 확대 (PAH, MASH) ✓ '27년 Q2 L/O 타겟 ✓ 글로벌 MNC 및 바이오텍 3사 논의 중 	 <p>신장 FIC 표적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 섬유화 발생 직접 억제 ✓ 전임상 중 ✓ '27년 Q1 L/O 타겟 ✓ 글로벌 빅파마 적극 관심 표명 중



1-1 Lazertinib | 경상기술료 수취 본격화 구간 진입하였으며, SC제형 승인 보험 등재 증가로 출시 2년만에 Lazertinib 병용 매출 본격화 전망

비소세포폐암 경쟁 약물 타그리소 대비
생존기간, 내성 관점에서 임상 결과 우수

Lazertinib 병용¹ vs 타그리소 단독 (경쟁약물) 비교 임상²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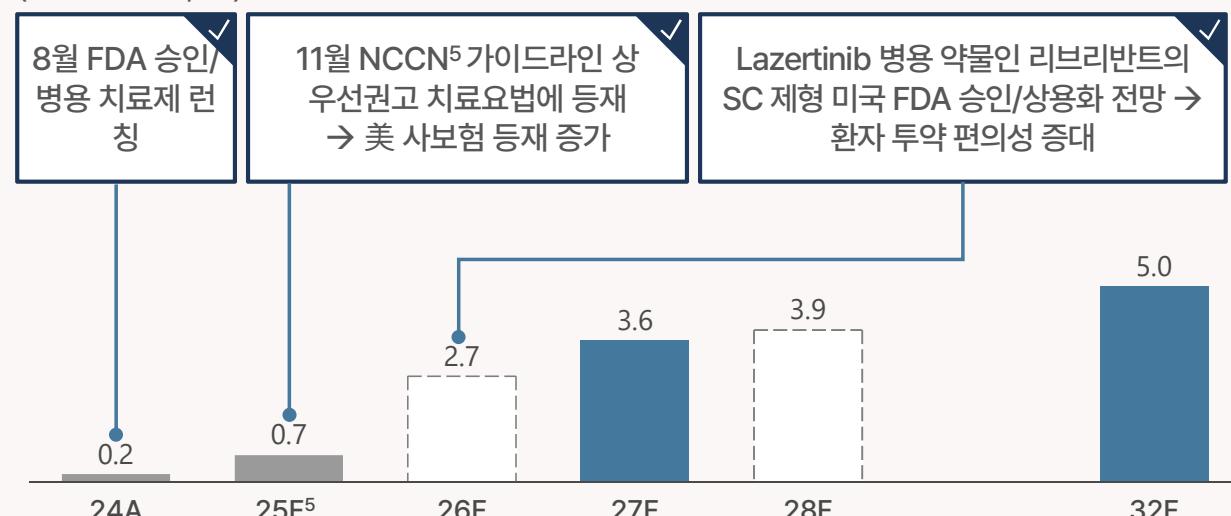
1. J&J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과 라즈클루즈(Lazertinib) 병용 투여; 2. Overall Survival (치료 시작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3. MET 증폭 내성 발생률; 4.'26년 SC제형 승인 이후 peak sales까지 7년 가정; 5.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종합암네트워크)로 NCCN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암 치료분야 내 권위있는 지침, 보험사는 암 치료 관련 약물·생물학제제 사용의 적절성 판단 시 NCC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5. 25년 3Q 누적 연율화;

Source: 회사자료, J&J

Lazertinib 병용 약물의 SC 제형 상용화로
'26년 매출 본격화 시작, '32년 Peak Sales는 \$5bn 전망

J&J Lazertinib 병용 매출 가이던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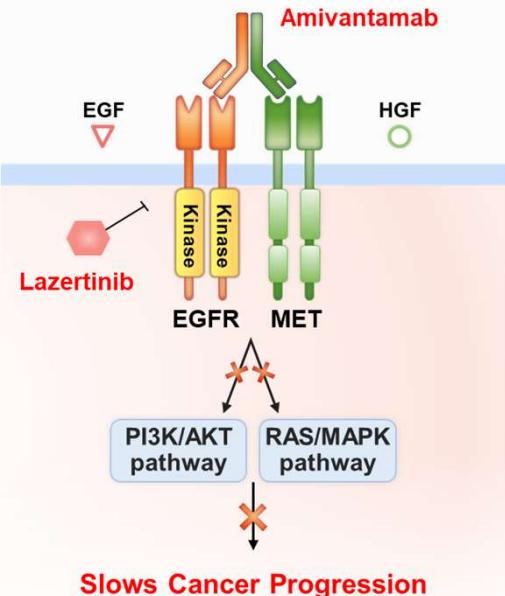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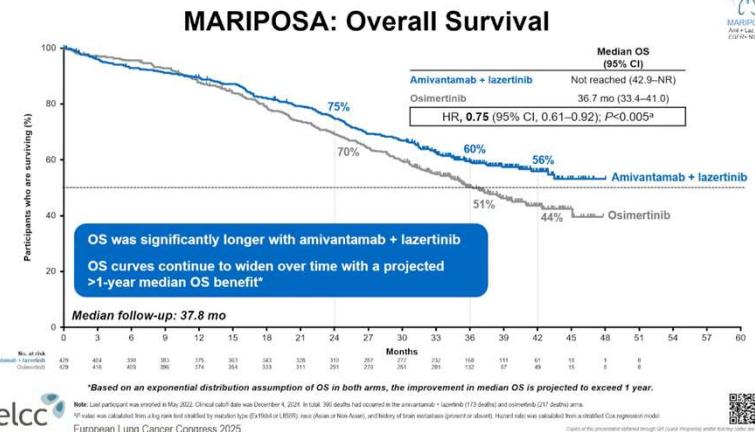


1-1 Lazertinib | 3세대 Amivantamab 병용요법으로 Osimertinib (타그리소) 저항성 극복 및 OS (전체생존기간) 12개월 이상 연장

병용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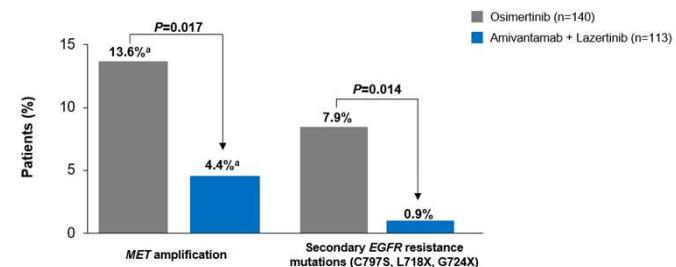
전체생존기간 (OS) 유의미한 개선



내성기전의 실질적 억제

MET and EGFR-based Resistance Mechanisms

Amivantamab + lazertinib significantly reduced the incidence of acquired MET amplifications and EGFR resistance mutations vs osimertinib



- ✓ Lazertinib + Amivantamab 병용요법: OS 50개월 이상, HR 0.75로 사망위험 25%감소
- ✓ Osimertinib 대비 생존곡선 격차가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
- ✓ USFDA: Lazertinib + Amivantamab 피하주사 승인→ 투여 편이성으로 향후 매출 증대 기여 (12/17, 2025)

- ✓ Lazertinib 병용요법: Osimertinib 대비 MET 증폭 및 EGFR 2차 내성 (C797S, L718X, G724X)발생 억제
- ✓ EGFR/MET 동시 차단으로 내성 발생 자체를 억제
→ 4세대 표적 필요 상황을 최소화



1-2 ADEL-Y01 | 2025년12월 사노피와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L/O 딜을 체결

'25년 사노피와 1.5조원 규모의 L/O 계약 체결

파이프
라인
정보

- 2020년 ADEL 社와 공동개발 계약 (후보물질 단계)
- 적응증: 알츠하이머
- 타겟: 타우 단백질
- Modality : 항체
- Stage : 임상 1b상 진행 중

L/O
정보

- L/O 시점: '25년 4분기
- 상대회사 (Licensee): Sanofi
- 딜 규모 : 약 1.53조원 (upfront: 약 1,180억원)
- 공동개발 파트너: 아델
- 수익 배분율: 47% (오스코텍)

ADEL-Y01은 Tau 응집 중심부를 직접 표적해 병리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경쟁약물군

타 타우 항체 대비

기허가 아밀로이드 항체 대비 (레켐비, 키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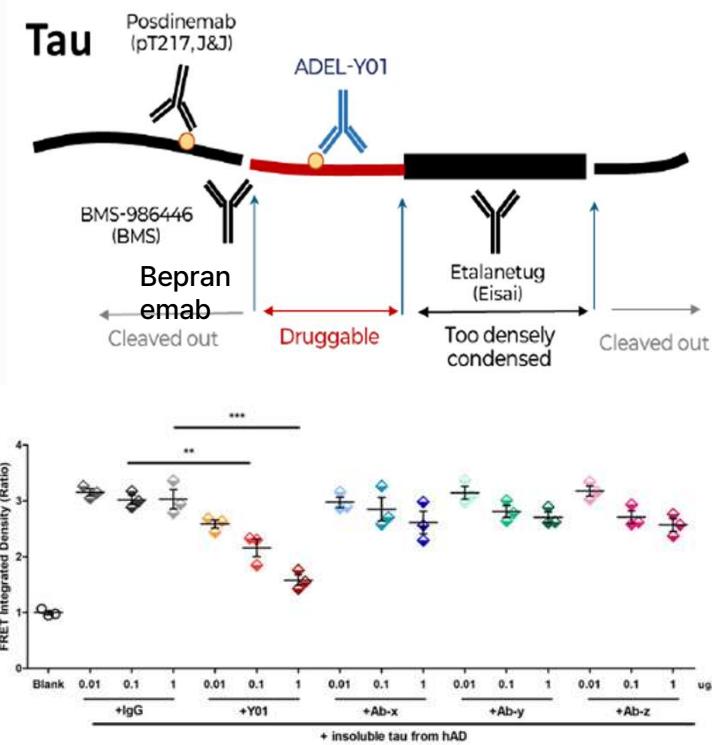
ADEL-Y01의 차별점

Tau 응집 중심부에 결합하여 병리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 경쟁 물질은 Tau의 N말단 영역에
결합하여 질병 진행 억제능이 제한적
- ADEL-Y01은 임상 1상에서 경쟁사 比
우수한 Tau 응집 억제 효능 입증

Tau는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이 높아 Tau
타깃 치료제가 더 큰 임상적 효용 가능

- 아밀로이드는 질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기허가 치료제는 효능 및
안전성에서 한계 노출
- Tau 축적이 실제 신경 사멸 및 인지저하를
유발하며, Tau 확산을 막는 것이 질병
진행 억제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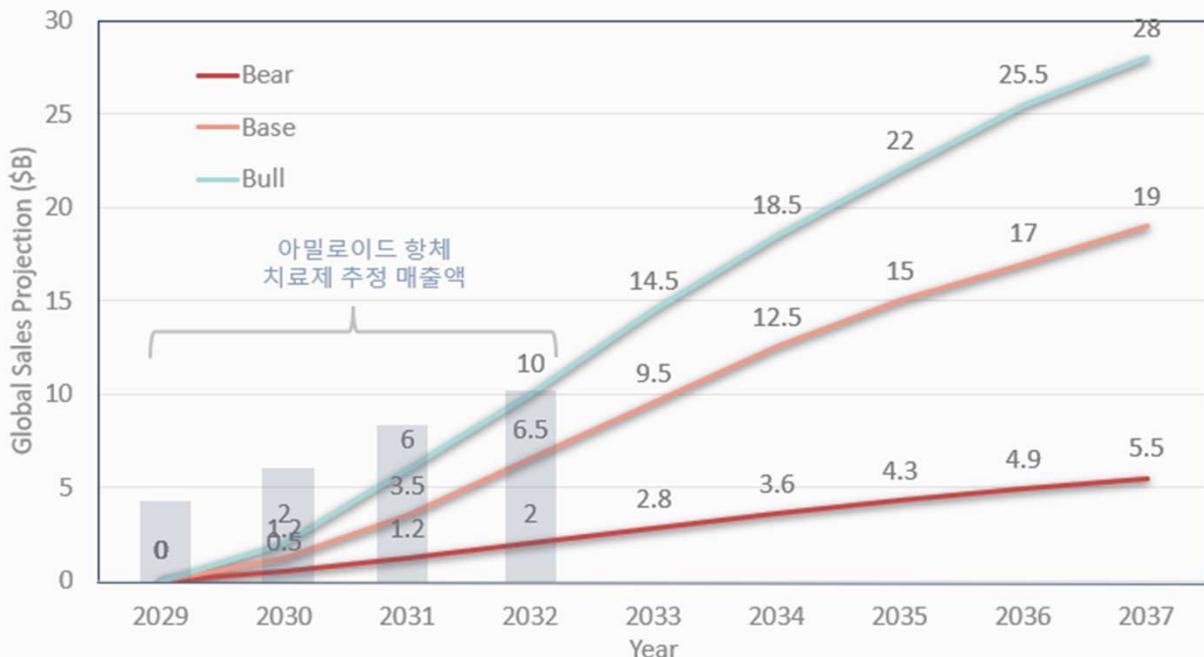
Source: GlobalData, 회사 자료



1-2 ADEL-Y01 | First- and Best-in-Class 가능한 타우 표적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



타우항체 시장은 임상 진행 결과에 따라 최근 알츠하이머 질환개선 (disease-modifying) 치료제로 허가받은 레켐비, 키선라 등의 아밀로이드 항체를 능가, 최대 40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DEL-Y01은 계열 내 최초 및 최고 약물이 될 가능성 및 타우 항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주요 가정

- 출시 연도: 2030년
- 적응증: 경도인지장애 포함 초-중기 알츠하이머 병
- 적용법: 단독요법, 1차 치료제
- 차별성: 우월한 질환개선 효능 및 안전성
- 약가: 연간 \$15,000 (bear) ~ \$25,000 (bull)
- 출시 지역: 미국 유럽 일본 등 7대 시장
- Biologics S-curve 적용

근거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mentia – Fact Sheet*;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 *World Alzheimer Report*; Braak H. & Braak E., *Neuropathological staging of Alzheimer-related changes*, *Acta Neuropathologica*; Jack C.R. et al., *NIA-AA Research Framework: Toward a biological definition of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 Dementia* (2018); *Tau 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cognitive decline in Alzheimer's disease*, *Nature Reviews Neurology* and *The Lancet Neurology* (review articles); Eisai Co., Ltd. & Biogen Inc., *Legevimi (lecanemab) product and pricing disclosures*; 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ICER), *Alzheimer's Disease: Value Assessment Framework*; IQVIA Institute, *Global Medicine Spending and Usage Trends*; EvaluatePharma, *Pharmaceutical market forecasting and adoption methodology*.



1&2) 초단기 및 단기| 초단기 (~'26년)는 Lazertinib 및 ADEL로 수익을 확보하고, 2년 내 단기 파이프라인 2건의 L/O로 추가 수익 창출 전망

구분

파이프라인
약물기전 및
모달리티Commercial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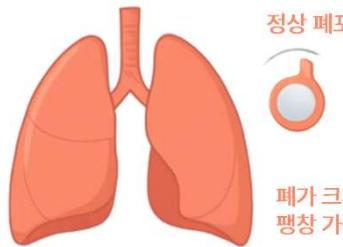
1 초단기 파이프라인		2 단기 L/O 파이프라인	
1-1 Lazertinib	1-2 ADEL-Y01	2-1 GNS-3545	2-2 OCT-648
 <p>폐암 표적 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글로벌 항암신약 상용화 ✓ 3세대 EGFR 억제제 – 내성을 유발하는 T790M 변이까지 억제 가능 ✓ '15년 유한양행에 L/O ✓ '26년부터 수익 실현 본격화 	 <p>알츠하이머 항체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 증상 완화가 아닌 병의 원인이 되는 Tau 단백질을 근본적으로 차단 ✓ 임상1상 진행중 ✓ '25년 Q4 사노피에 L/O ✓ 약 550억원 Upfront 매출 (총 value 약 7,200억원) 	 <p>폐섬유증 표적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화와 염증 동시 억제 ✓ 다양한 적응증 확대 (PAH, MASH) ✓ '27년 Q2 L/O 타겟 ✓ 글로벌 MNC 및 바이오텍 3사 논의 중 	 <p>신장 FIC 표적치료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 섬유화 발생 직접 억제 ✓ 전임상 중 ✓ '27년 Q1 L/O 타겟 ✓ 글로벌 빅파마 적극 관심 표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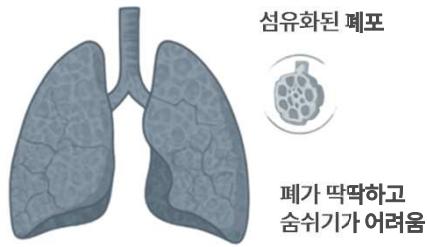
2-1 GNS-3545 | ROCK2 억제제가 차세대 IPF 치료제로 부상

특별성 폐섬유증 (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건강한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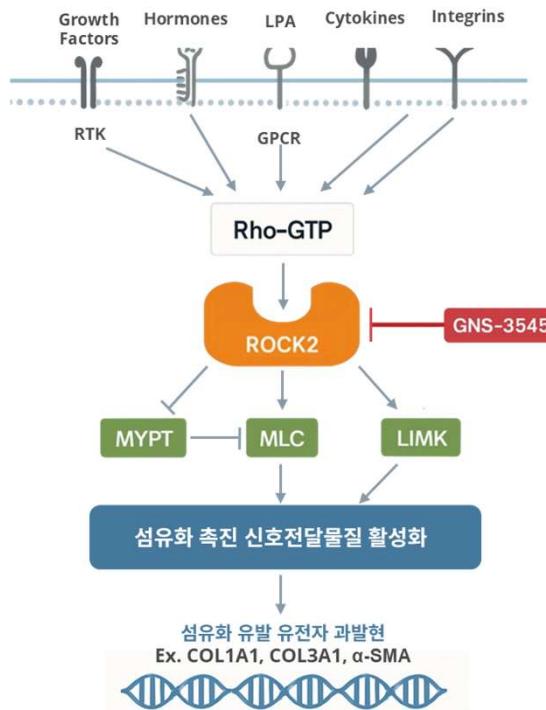


특별성 섬유증의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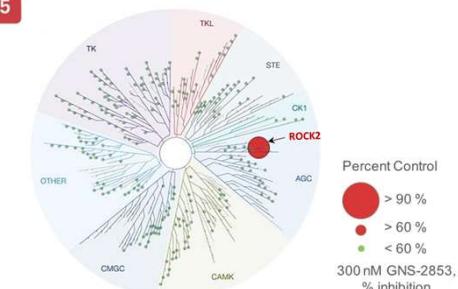


- ✓ 간질성 폐렴 → 특발성 간질성 폐렴 → **특별성 폐 섬유증 (IPF)**
- ✓ 비정상적인 염증 및 섬유증, 결합 조직의 비후화 및 흉터의 결과로 발생하는 폐 실질의 손상이 특징
- ✓ 풍부한 근섬유아세포와 콜라겐 기질을 형성
- ✓ 주로 폐포주변의 간질 조직과 상피 기저막과 내피 기저막 사이의 공간 조직에서 섬유증을 유도하여 호흡 손상 초래

ROCK2: 폐섬유화 원인 인자



- ✓ Rho-GTP에 의해 활성화 되는 ROCK
 - 특발성 폐 섬유증과 관련된 다양한 세포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
 - ROCK2 활성의 억제는 폐 섬유증에 대해 유망한 치료전략으로 기대



- ✓ ROCK2에 대한 뛰어난 억제효능과 강력한 선택성 확인



2-1 GNS-3545 | 섬유화 초기 경로 차단을 통해 IPF 치료제 시장 성장을 이끌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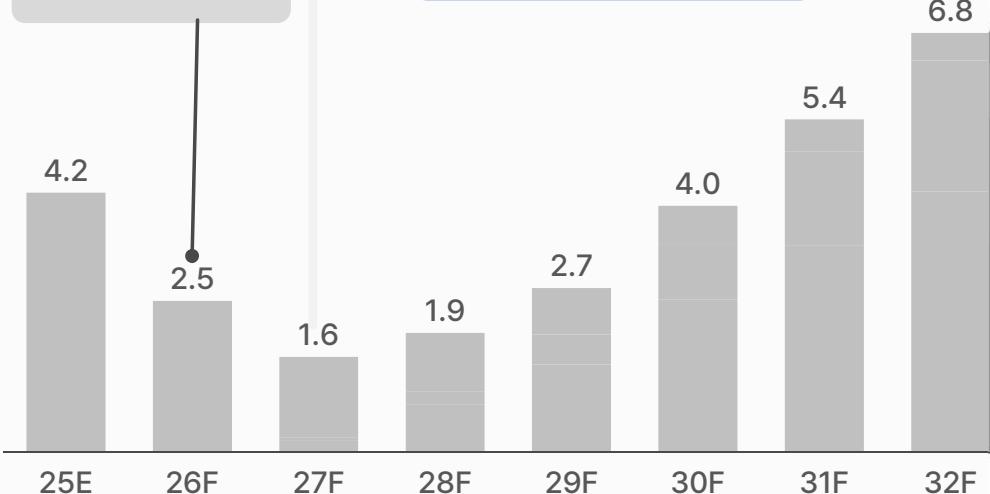


현재 IPF 대상 승인 약물은 Ofev, Esbriet, Jascayd 세 가지뿐이나 향후 증상 완화 약물 및 섬유화 초기 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차세대 치료제 등장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30년 이후 차세대 치료제가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할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주요 후기 신호 억제 약물인 Ofev의 LOE 도달 및 제네릭 출시로 인한 시장 규모 감소

증상 완화 약물 및 차세대 치료제 출시로 IPF 시장이 본격 성장 국면 진입¹



1. Evaluate Pharma 추정치로 off-label로 사용되는 약물은 제외한 수치

Source: Evaluate Pharma, 회사 자료



2-1 GNS-3545 | ROCK2 억제를 통한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차별적 기전을 기반으로 MNC 및 바이오텍들과 논의 중이며 '27년 L/O 목표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며
'27년 L/O 기대

GNS-3545는 섬유모세포의 활성화 전반에
작용하여 유전자 수준에서 세포 정상화 가능성 기대

L/O 시 GNS-3545의 유사 약물들은
0.3~1조원 수준의 가치를 형성

파이프
라인
정보

- 회사 고유의 GENO-K 플랫폼 기반 자체 개발
- 적응증: 특발성 폐섬유증
- 타겟: ROCK2¹
- Modality : Small molecule
- Stage: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 두번째 투여 완료 결과
탁월한 경구흡수 및 안전성
탁월한 약동력학-1일 1회

L/O
정보

- 목표 L/O 시점: '27년
- 현 Status: 글로벌 MNC 및 바이오텍 3사 논의 중

비교군	GNS-3545의 차별점
타 차세대 치료제 대비	<p>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섬유화 관련 유전자 패턴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약물은 섬유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자극 중 일부를 차단하여 섬유화 억제 GNS-3545는 섬유모세포가 활성화 되는 스위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병리적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의 억제 가능
기존 치료제 대비	<p>섬유화 후기단계에 작용하는 기존 치료제 比 초기부터 후기단계까지 폭넓은 효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유모세포 활성화는 세포 손상 후 섬유화를 유발하는 섬유화 핵심 단계 주로 섬유모세포 활성화 이후에 작용하는 기존 치료제 대비, GNS-3545는 섬유모세포 활성화 전반에 작용
증상 완화제 대비	증상 완화제와 달리 GNS-3545는 실제적인 섬유화 억제 가능

Licensee	Sarepta	Roche	Incyte
Licensor	Arrowhead	Kiniksa	Syndax
L/O 시기	2024	2022	2021
파이프라인	SRP-1002	Vixarelimab	Axatilimab
적응증	IPF	IPF	IPF
Target	Matrilysin	OSMR β ²	MCSF1R ³
Modality	siRNA	Antibody	Antibody
단계	임상2상	임상2상	임상2상
L/O upfront	미공개	\$100M	\$117M
L/O 총규모	\$218M ⁴ (약3,050억원)	\$700M (약9,800억원)	\$602M (약8,4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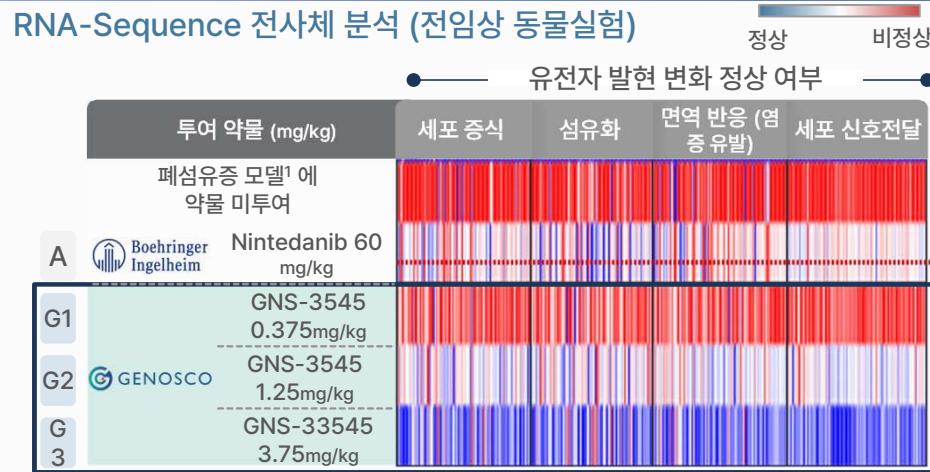
1. Rho-associated coiled-coil containing protein kinase 2; 2. Oncostatin M receptor β ; 3.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1 receptor; 4.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 \$2,175M 규모로
L/O 계약 체결

Source: GlobalData, 회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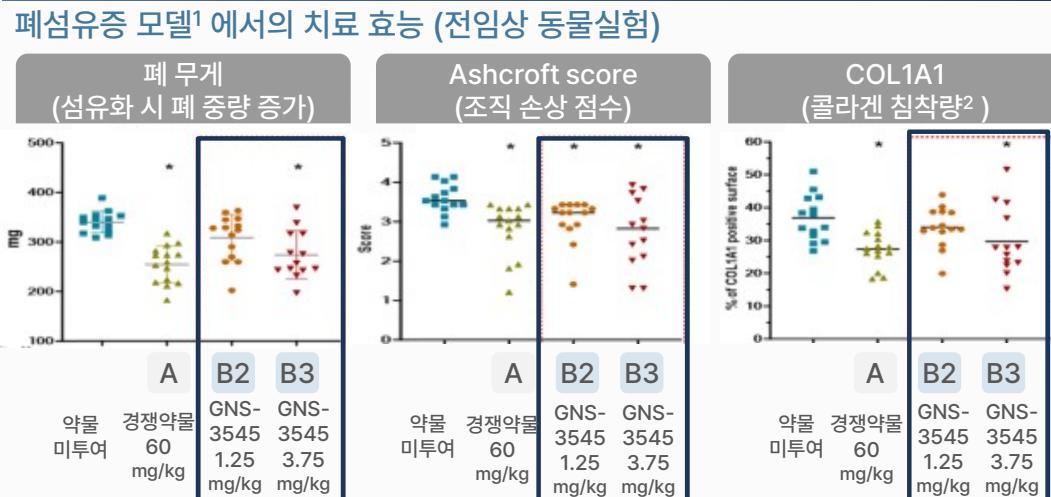
2-1 GNS-3545 | 섬유화 촉진 유전자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기존 약물 대비 더 높은 치료적 잠재력 확보

폐 섬유증 관련 유전자 변화를 정상으로 되돌려 폐 기능 회복 가능성이 표준 치료제 대비 높음



- GNS-3545는 투여량을 늘릴 수록 폐섬유증 관련 유전자 발현 패턴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우수함을 증명
- 폐섬유증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 Nintedanib (기존 폐섬유증 표준 치료제) 보다 더 강력한 효과

주요 치료 지표들에서 폐섬유증 기존(표준) 치료제와 유사한 수준의 효능 확인



- 폐섬유증 모델에 GNS-3545 투여 시, 기존(표준) 치료제인 Nintedanib의 15배 적은 용량으로도 유사 효능을 보임 (폐와 콜라겐 지표)
- 섬유화 성과 지표인 Ashcroft score는 1.25mg/kg에서도 감소 → RNA Seq 결과와 일치

1. 블레오마이신으로 폐섬유증을 유도한 세포에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 효능 검증; 2. 섬유증이 생기면 콜라겐이 과하게 쌓여 폐가 굳어지며, COL1A1 수치가 높을수록 폐가 딱딱하게 변한 상태로 간주 가능

Source: 회사자료



2-2 OCT-648 | 신장이 섬유화되는 원천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병리적 섬유화를 억제하는 First-in-class 파이프라인



점차 다른 기전을 가진 다양한 신장 부담 완화 약물의 도입으로 동일 환자 대상 단계적 치료 적용이 가능해지고,
질병 진행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신약 등장으로 시장 규모 확대

(단위: 십억 달러)

주요 신장 부담 완화 약물인
Farxiga의 LOE 도달 및
제네릭 출시로 인한 시장 규모
감소

새로운 기전의 신장 부담 완화 약물
및 섬유화 억제 신약들이 출시되며,
해당 약물들 중심으로 시장 성장



주요 예시

MZE829
Rilparencel

치료 접근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신장
섬유화를
직접적으로
억제

미충족 수요

특정 환자군에
국한된 치료로
전체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광범위한
적용이 어려움

OCT-648
목표 영역

섬유화
억제제

신장
부담
완화제

Farxiga
Kerendia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신장
악화 요인을
조절하여 신장
부담 완화

질병 진행 억제
효과 및
말기 신부전증
환자 대상으로
불충분한 신기능
보호 효과

잠재 확장
가능 영역

1. Evaluate Pharma 추정치로 off-label 사용 및 합병증 관리에 사용되는 약물은 제외한 수치
Source: Evaluate Pharma, 회사 자료



2-2 OCT-648 | 섬유화 활성 유전자의 핵내 신호 이동을 차단하고 동물 모델에서 용량 의존적 섬유화 억제를 확인함으로써 기전적 타당성과 효능 재현성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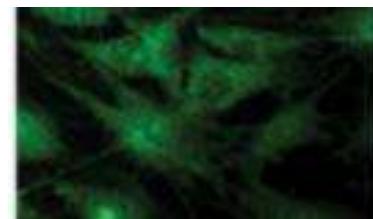
조직 손상 시 나타나는 섬유화 유전자 발현 차단 확인 ('24년)

형광 염색을 통한 세포 손상 시 섬유화 유전 인자 이동 분석

섬유화 유도



OCT-648 작동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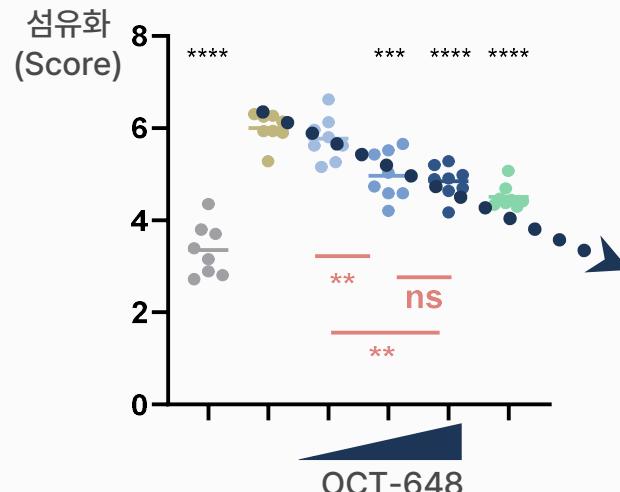


- 형광이 핵의 형태를 따라 뚜렷하게 모여있는 형태
- 세포 손상에 따른 섬유화 유전 인자가 핵 내에 결집 확인

- 형광이 세포질 전반으로 넓게 퍼져있는 형태¹
- OCT-648의 섬유화 유전 인자의 핵내 결집 차단 기전

동물 모델을 통해 OCT-648의 투여 용량에 비례한 신장 섬유화 억제 반응 확인 ('25년)

OCT-648 투여에 따른 섬유화 억제



- OCT-648 투여 용량이 높아질수록 섬유화 지표가 감소하며 섬유화 억제 효과 확인
-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섬유화 억제 효과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특성은 약물 효과가 기전적으로 안정적임을 의미

1. Science Trans. Medicine 2022 논문(NUAK1 promotes organ fibrosis via YAP and TGF- β /SMAD signaling) – OCT-648 동일기전 물질 사용
Source: 회사 자료



2-2 OCT-648 | 기존 치료제가 제한된 환자에 한해 적용되는 반면, OCT-648은 환자 전반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보유해 다수 바이오텍의 관심이 높으며 '27년 L/O 목표

현재 전임상 진행 중이며
'27년 L/O 기대

OCT-648은 섬유화 초기 경로를 차단해 모든
만성 신부전환자군에 적용 가능

L/O 시 OCT-648의 유사 약물들은
0.4~1조원 수준의 가치를 형성

파이프
라인
정보

- 자체 라이브러리 기반 스크리닝 통해 발굴 및 개발
- Stage: 전임상 후보
- 적응증: 신장섬유화
- 타겟: NUAK1
- Modality: Small molecule

L/O
정보

- 목표 L/O 시점: '27년
- 현 Status: 글로벌 바이오텍 관심 표명 중

비교군
타 섬유화 억제제 대비

신장 부담 완화제 대비

OCT-648의 차별점

- 타 약물은 제한된 환자군에만 적용되나, OCT-648은 전 환자 대상 적용 가능
- 경쟁 물질은 APOL1 변이 등 특정 유전자 그룹이 발달하는 환자군 대상 치료 가능
 - OCT-648은 섬유화의 초기 경로를 차단하여 유발 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신부전증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 확보

신부전 환자의 신장 섬유화를 억제해 질병 진행을 차단

- 신장 부담을 완화하는 약물은 질병 진행을 막지 못하며, 또한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에서는 효과가 제한적
- 신부전 환자에게는 신장 부담 완화를 넘어 섬유화를 억제해 손상된 신기능 회복이 중요

Licensee	Novo Nordisk	Asahi Kasei	Boehringer Ingelheim
Licensor	Ventus	Alche Medicine	Zealand
L/O 시기	2022	2022	2020
파이프라인	VENT-01	ETA antagonist	Survodutide
적응증	CKD	CKD	CKD
Target	NLRP3 ¹	Endotherlin A receptor	GLP-1 receptor
Modality	Small molecule	Small Molecule	Peptide
단계	전임상	전임상	전임상
L/O upfront	\$70M	미공개	미공개
L/O 총규모	\$703M (약9,800억원)	\$267M (약3,700억원)	\$553M (약7,700억원)

1. Nucleotide-binding oligomerization domain-like receptor family, pyrin domain-containing 3

Source: GlobalData, 회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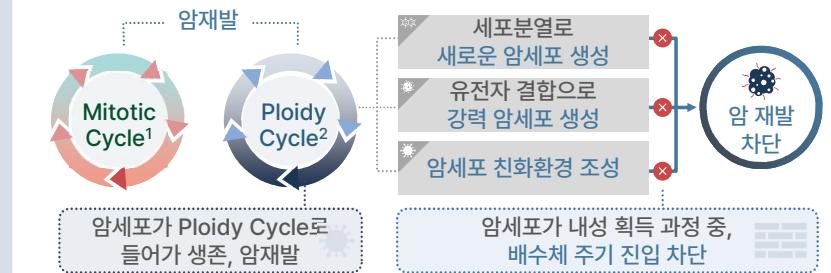
3 중장기 파이프라인 개요 | 항내성항암제 & DAC 분야 집중을 통해 혁신 항암제 선도기업 도약

차별점

포트폴리오 의미

현재 파이프라인

3-1 항내성항암제 (ACART)



✓ 암세포의 치료제 내성 획득 근본 원인을 차단해 재발 억제, 기존 항암제의 지속성 한계를 해결

✓ 고위험·고수익의 암종 및 타겟 확장 가능한 시장 기회 선점

✓ 현재 임상 1상 단계 1건 (OCT-598) 및 다수 과제 진행 중 (ONC1, ONC2, ONC3); 조기 L/O 가능 FIC

3-2 Degrader-Antibody Conjugate (DAC)

- 3종 안전장치:
 ✓ 1단계: 정상세포 유입 차단
 ✓ 2단계: 비표적 단백질 작용 차단
 ✓ 3단계: TPD 활성화 차단



✓ 3단계 안전장치로 약물이 정상세포에서 작용하지 않으며 독성 최소화 (기존 ADC부작용 한계 극복)

✓ 골격별 우수 Payload 라이브러리 및 검증된 기술 기반, 초기 공동개발 통한 빠른 L/O 수익화 지향

✓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의 약효 유도 안정성 강화(선도물질), FIC: DAC1, DAC2, DAC3, PKMYT1

ACART =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Mitotic Cycle = 정상 세포 분열 주기. 암세포는 항암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주기가 아닌 Ploidy cycle로 이탈해 생존을 시도함; Ploidy Cycle = 암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생존·진화 및 내성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배수성 순환 메커니즘; 3. 암세포 내에서만 탈락/제거되어 약물 작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장치



3-1 항내성항암제 (ACART) 개요 | 내성을 극복하여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차세대 항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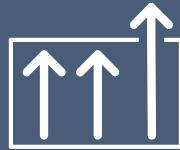
A



시장 매력도

- A1 [Mechanism] 항암제 시장의 대규모 미충족 수요 공략이 가능한 기전
- A2 [시장 규모] 고형암 항암제 시장의 64%를 차지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
- A3 [수익화] 빅파마의 강한 수요 기반 조기 L/O를 통한 빠른 수익화 가능
- A4 [Asset valuation] non-FIC 약물 대비 높은 가치 기반 수익률 증대 가능

B



차별점

- B1 [기술적 차별성] 종양의 치료제 내성 획득 과정의 중심인 배수체 주기를 차단함으로써 근본적인 내성 발현 억제
- B2 [개발 플랫폼] 내성 기전 특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타깃 및 hit를 발굴 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확장이 가능

C



Commercial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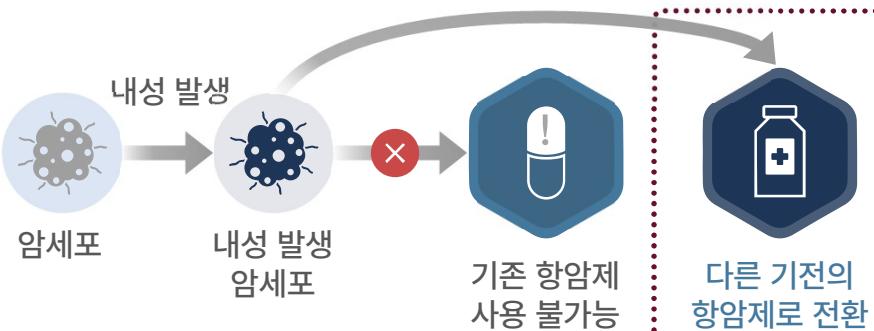
- C1 [사업모델] 임상 1상 이전 조기 L/O를 통한 수익화 고려 중
- C2 [파이프라인] 현재 4개의 과제를 보유 중이며 '28년 이후 순차적 L/O 추진하는 한편, 자체 R&D 및 O/I를 통해 지속 과제 확보 목표



A1

시장 매력도 - Mechanism | 기존 항암제는 내성 발생 후 약물을 전환; 항내성 항암제는 병용투여를 통해 기존 항암제의 내성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효능을 지속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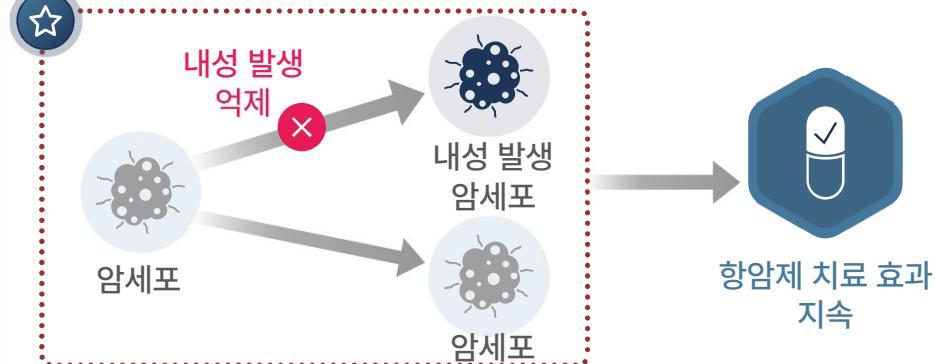
기존 항암제의 내성에 대한 접근 방법



암이 특정 기전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해당 기전과는 다른 기전을 가진 항암제를 통해 암을 치료

약물을 교체하더라도 암세포의 특성상 바뀐 약물에 대한 추가 내성이 발생하며 악성화와 함께 치료 옵션이 점차 소진!

항내성항암제의 접근 방법



항내성항암제는 암에서 내성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여 내성 발생 원천 차단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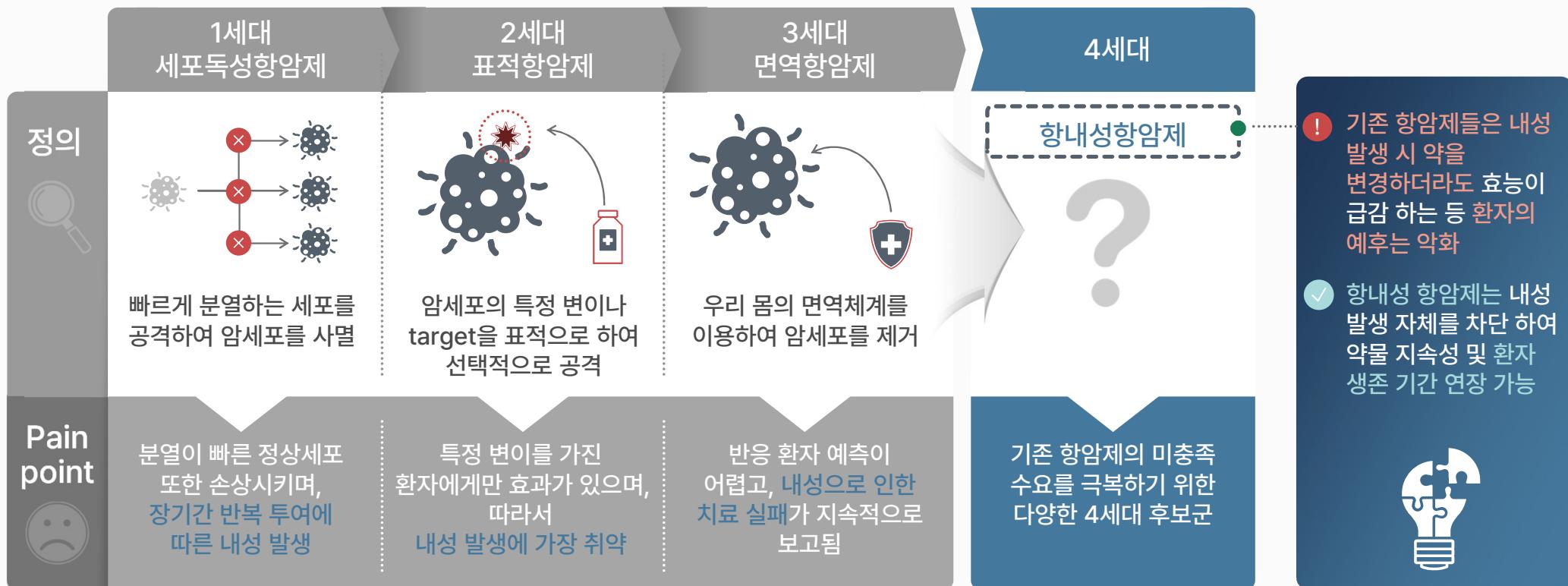
기존 항암제의 효능 지속 기간을 연장하여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기간 향상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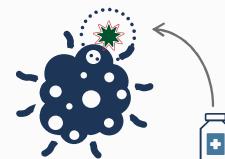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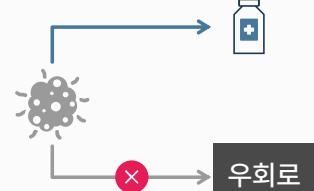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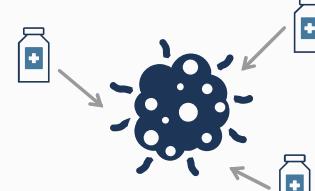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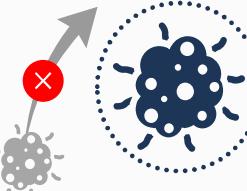
시장 매력도 - Mechanism | 항암 분야의 장기 난제인 암 내성 형성의 근본 원인 차단

항암 치료제는 3세대까지 발전해 왔으며, 이제 4세대 항암제 후보군 중 핵심 축으로 항내성항암제가 부상 예상





B1 차별점 - 기술적 차별성 | 내성 획득 초기 단계인 배수체 진입 억제를 통해 후속 내성 발생 과정 자체를 차단하는 근본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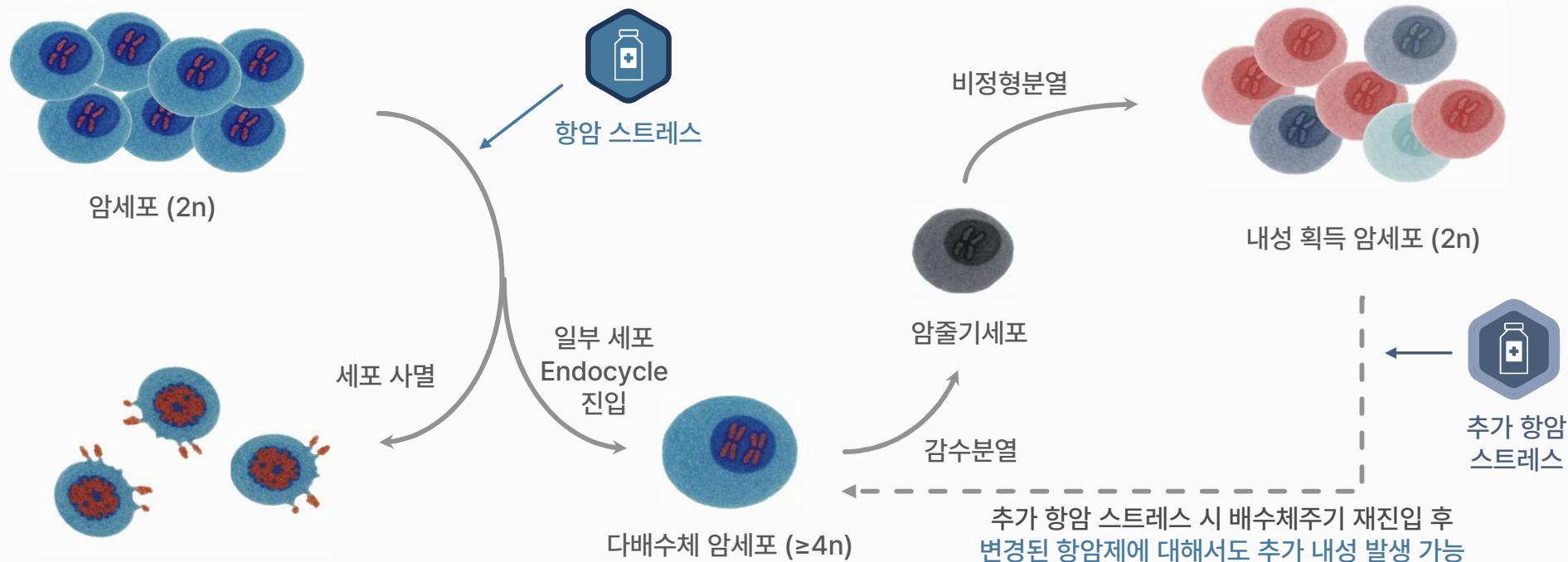
구분	A On target 내성 변이 공략	B 우회 경로 차단/합성치사	C 암 줄기세포 공략	D オス코텍 집중 영역 배수체 ¹ 주기 진입 차단
기전	 <p>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공략</p>	 <p>기존 치료제에 대한 우회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내성 차단</p>	 <p>내성과 재발의 원인이 되는 암 줄기세포 공략</p>	 <p>암세포의 내성 획득 과정의 초기 단계인 배수체 주기 진입 차단</p>
대표 파이프라인 (stage, 개발사)	<p>IDRX-42 (Ph1, GlaxoSmithKline), STX-478 (Ph1b, Lilly)</p>	<p>BL-B01D1 (Ph1, Bristol Myers Squibb), ALT 저해 합성치사 (전임상 이전, Boehringer Ingelheim)</p>	<p>MK-6070 (Ph1/2, MERCK)</p>	<p>OCT-598 (임상 1상, Oscotec Inc.)</p>
특징	<p>기존 치료제에 대해 이미 내성을 획득한 암을 이차적으로 타겟함; 다양한 치료제에 대한 내성 발현 기전의 일부만을 커버하며 또 다른 3차, 4차 내성 발현 가능</p>			

1. 배수체란 암세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염색체를 비정상적으로 늘린 상태로, 이는 암세포의 항암제 내성 형성을 촉발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
Source: ClinicalTrials, 각 사 홈페이지



B1 차별점 - 기술적 차별성 | 배수체 주기는 암세포가 항암제 내성을 획득하는 핵심 기전

배수체란 세포가 정상보다 많은 염색체 세트를 가진 상태로, 암세포는 항암 스트레스 노출 시 일시적으로 다배수체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감수분열하는 과정에서 암줄기세포를 거쳐 항암제 내성을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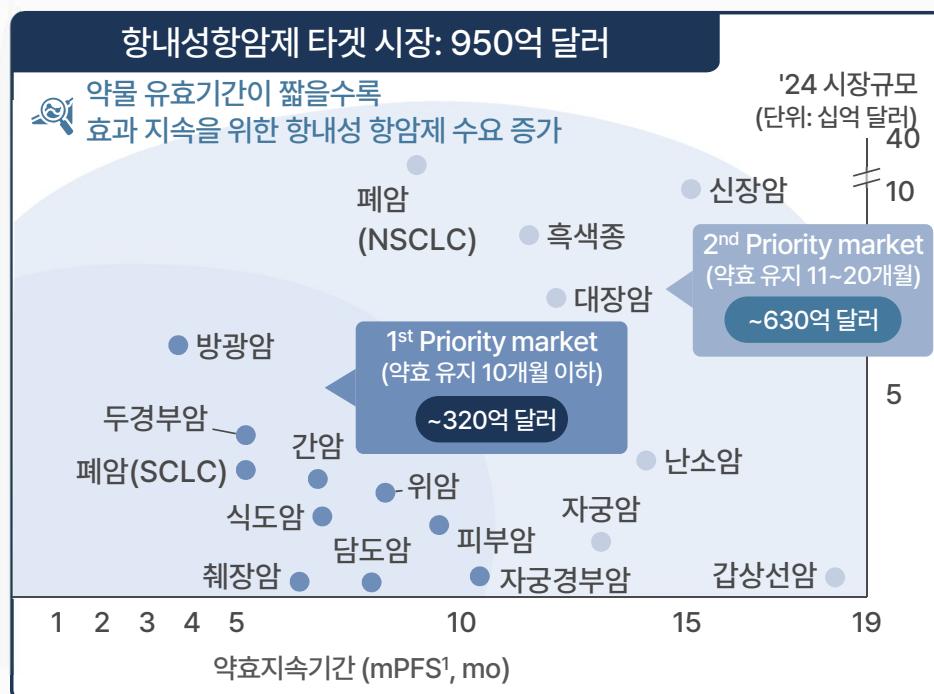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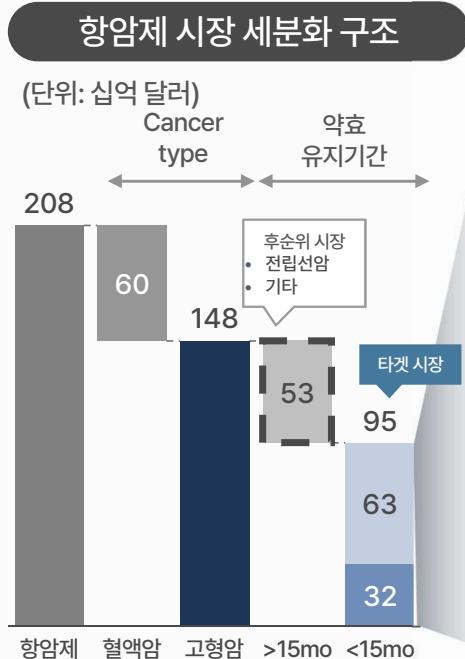


A2

시장 매력도 - 시장 규모 | 전체 고형암 시장의 ~64%인 95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



약효 유지 기간이 20개월 미만인 암종이 주요 일차 타겟으로, 항내성항암제의 잠재 시장 규모는 연간 9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



Source: Evaluate Pharma, NCCN guideline, FDA, Expert interview

항내성항암제는 약효 지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수요가 크고, 병용이 가능해 시장 진입이 용이

① 항내성항암제의 거대한 수요

“ 항암제 내성 억제에 대한 의료적 수요는 매우 크며, 기존 치료 대비 PFS를 50% 이상 연장할 수 있다면 임상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개선으로 평가... ”

-Oncology Physician-Scientist,
MD Anderson-

② 병용 투여를 통한 시장 침투 용이

“ 병용요법 형태는 기존 치료에 쉽게 추가될 수 있어 실제 임상 적용 및 시장 수용성이 높은 전략으로 평가... ”

-Oncology Physician-Scientist,
MD Anderson-



A3

시장 매력도 - 수익화 | FIC 항암제는 non-FIC 대비 조기 L/O 비율이 높고 빅파마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L/O를 통한 빠른 수익화가 가능



최근 빅파마들은 항암제 내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파이프라인 확장 추진 중



“Resistance is a major challenge — some tumors don't respond at all, others relapse
-Levi Garraway, CMO (2025)



“We're zeroing in on genetic mechanisms driving resistant cancer to extend patient survival
-Susan Galbraith, EVP, Oncology R&D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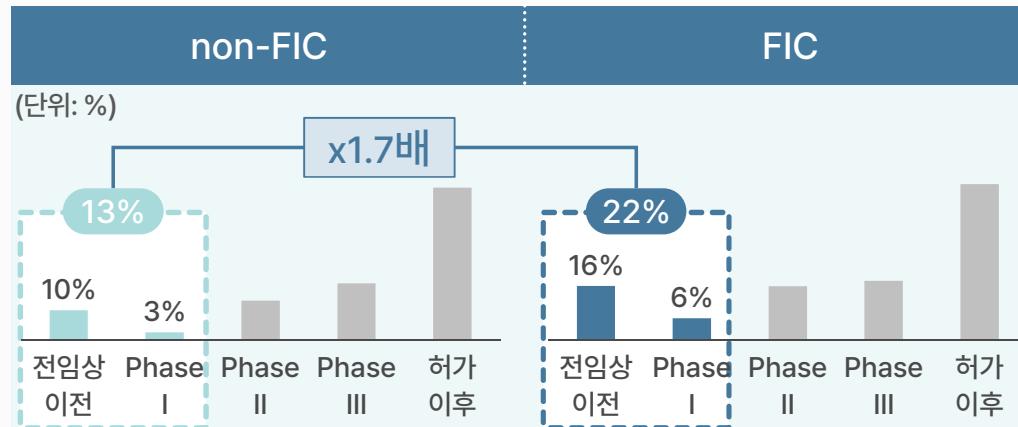
“Dealmaking will continue to be a core growth strategy... toward cancer...
-Emma Walmsley, CEO (2025)



“Sanofi has committed an additional \$625M to support its future innovation pipeline
-Paul Hudson, CEO (2025)

1. 2015-2024년 동안 FDA 허가를 받은 약 140개 항암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총 250여 건의 기술거래 분석 기준
Source: FDA, GlobalData

FIC 항암제는 임상 1상 이전 L/O 비율이 22%로 non-FIC 약물 13% 대비 높은 양상¹



FIC의 조기 L/O 가능 원인

항암제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FIC 선점 경쟁

비교 약물이 없어 기전 검증 등의 초기 데이터로도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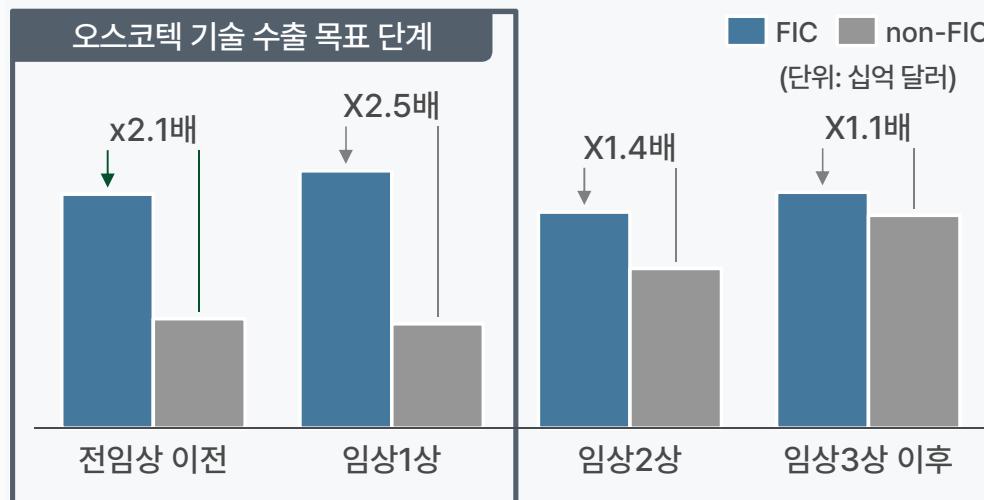
FIC의 높은 임상 실패 확률에 따른 리스크 배분



A4

시장 매력도 – Asset Valuation | FIC는 non-FIC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밸류로 평가되며, 내성 이슈가 큰 영역에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

FIC는 non-FIC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로 거래¹



FIC 메커니즘의 혁신성과 그에 따른 시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반영

데이터로 중요도가 전환되고 FIC의 후발 주자 등장으로 프리미엄 감소

특히 항암제 내성으로 신규 타깃에 대한 수요 확대되면서, FIC 자산은 더 높은 밸류로 거래되는 양상 존재

Target		EGFRxHER3		CDH6	
파이프라인명		BL-B01D1	AVZO-1418	R-DXd	SIM0505
파이프라인 정보	FIC 여부	FIC	non-FIC	FIC	Non-FIC
Modality	Bispecific ADC	Bispecific ADC		ADC	ADC
적응증	고형암	고형암		고형암	고형암
L/O 정보	Licensee	BMS	Avenzo	Merck	Daiichi Sankyo
Licensor	SystImmune	DualityBio		NextCure	Simcere Zaiming
거래연도	2023	2025		2023	2025
거래 당시 Stage	임상1상	전임상		임상1상	임상1상
Deal Value	\$8,400M	\$1,200M		\$7,000M	\$745M
Upfront	\$800M	\$50M		\$1500M	\$17M

1. 2015-2024년 기간 동안 FDA에서 허가 받은 약물을 대상으로 발생한 기술 거래 중, Total deal value가 10M 이상인 사례의 중앙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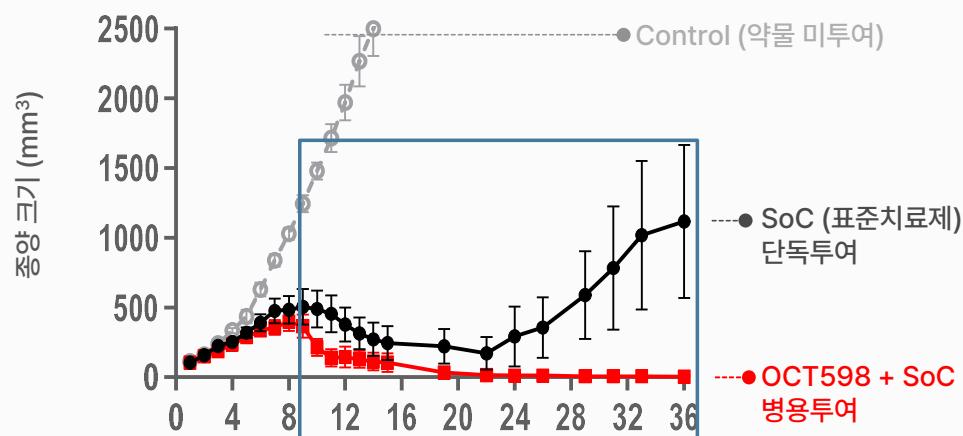
Source: FDA, GlobalData, Evaluate Pharma



B1 차별성 – 기술적 차별성 | 당사의 OCT-598은 전임상 연구를 통해 암세포의 내성 발생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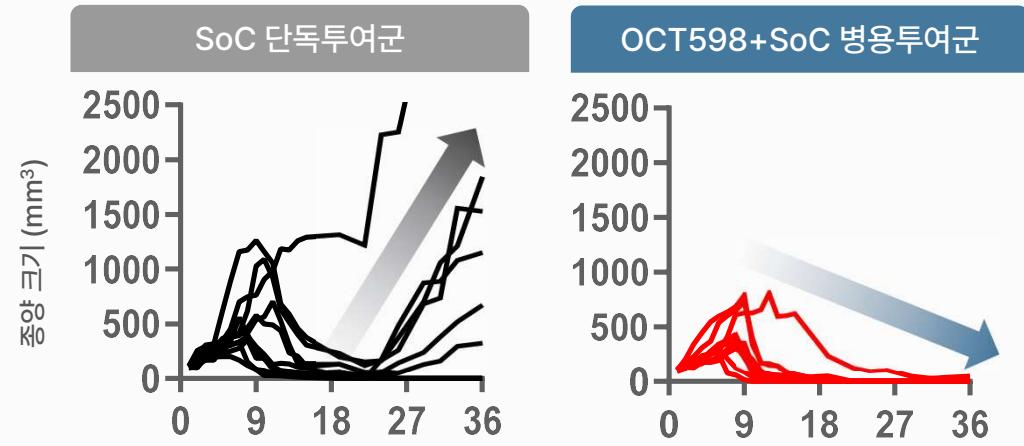
마우스 폐암 모델에서 OCT-598 병용 투여가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내성을 차단

마우스 폐암 모델 기반 평균 종양 성장 곡선



➤ OCT-598 병용 투여 시 종양 크기 감소 및 재발 억제

개체별 종양 성장 곡선



➤ OCT-598 병용 처방 시 내성이 차단되어 모든 실험체에서 27주 이후에도 항암 효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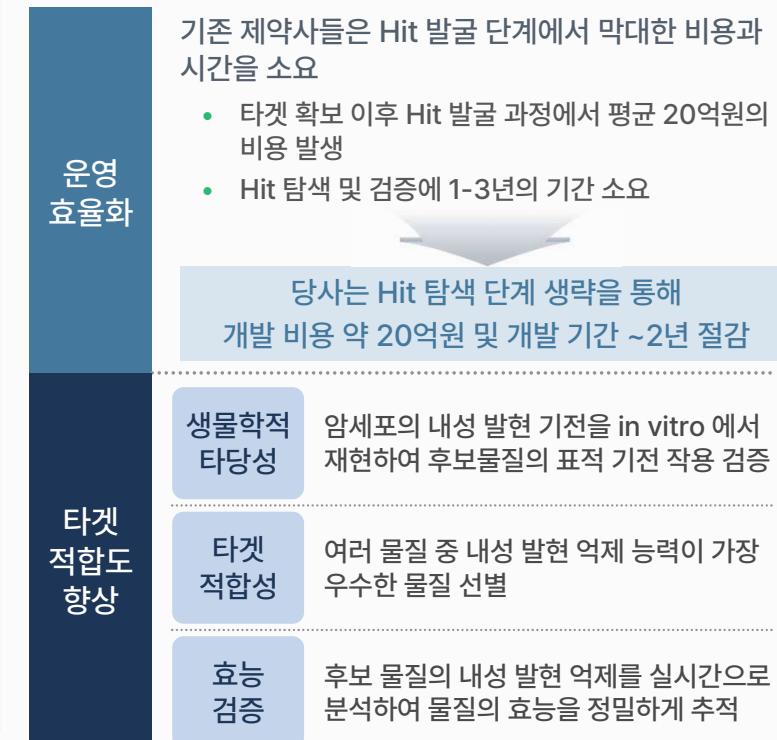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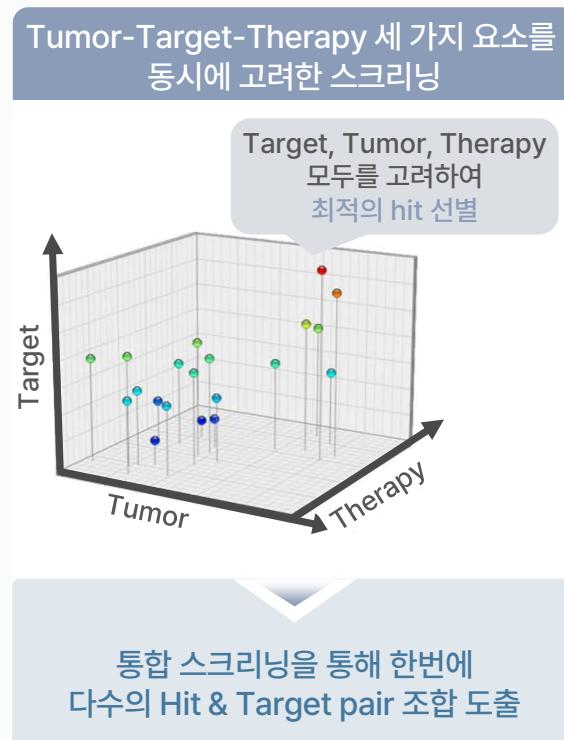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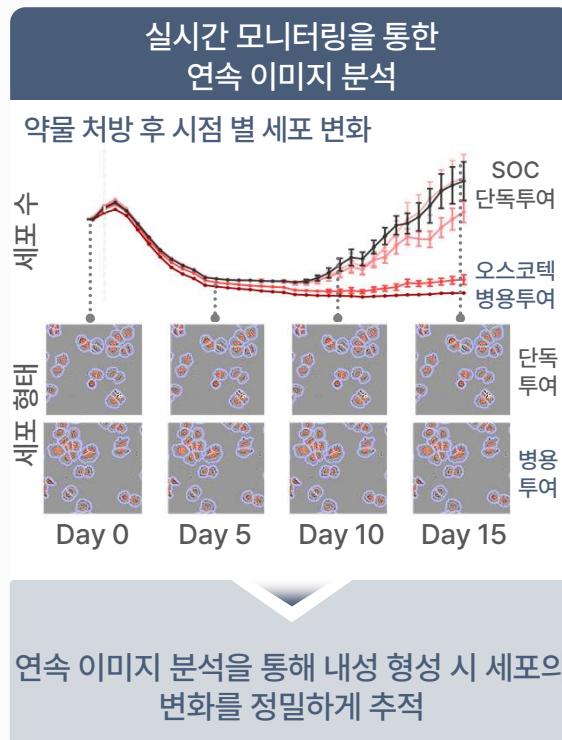


B2

차별점 - 인프라 | 연속 이미지 기반 내성특화 Discovery 플랫폼 구축

ACART¹ Discovery 플랫폼의 연속 이미지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내성 기전 특화 Hit & Target pair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확장

해당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올바른
타겟 선정 능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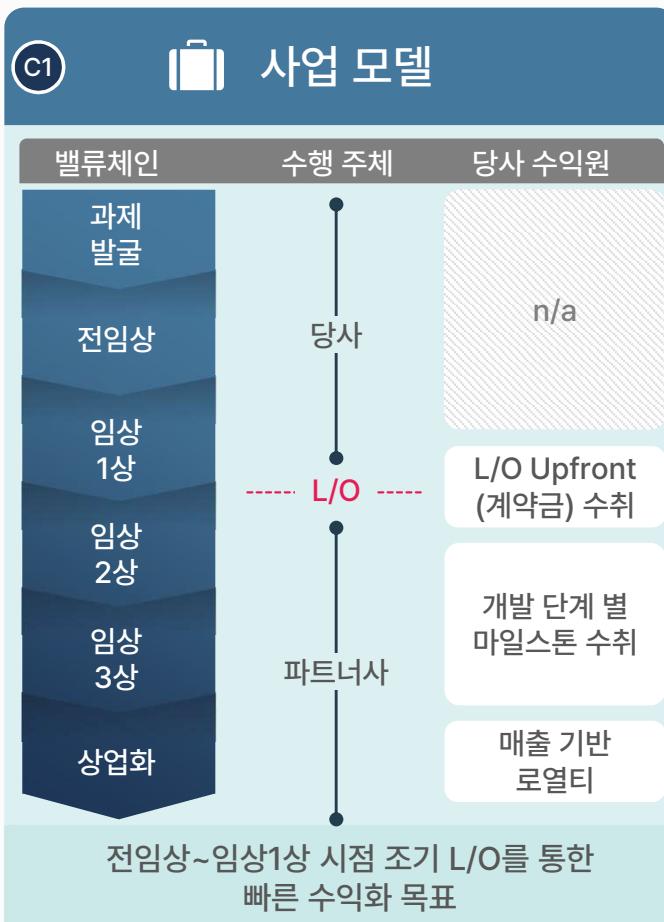
1.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Source: 회사 자료



c

Commercial Potential | 현재 4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며 '28년 이후 조기 L/O를 통해 수익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R&D 및 O/I를 통해 지속적 과제 확보 추진



C2 보유 파이프라인

	적용증	Target	Modality	현 개발단계	L/O 예상시점	잠재 파트너사				
OCT-598		EP2/4		Phase1						
ONC1	고형암	NUAK1/2	Small Molecule	후보물질선정 Discovery	'28년 이후	N/A				
ONC2										
ONC3		Undisclosed								
ONC4	기타 제작 진행 현제									
ONC5										
ONC6										
	자체 R&D 및 Open innovation을 통해 연 2-3개 수준의 추가 과제 지속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n innovation 시 License in, 공동 개발, 플랫폼 협업 등 다양한 방법 고려 사업 모델 및 자사 역량과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과제 확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단계: 후보물질-전임상 Modality: Small molecule 및 Antibody or DAC (제노스코) 									



3-2 DAC 개요 | 독자적 Triple lock 기술과 GENO-D 플랫폼에 기반해 매력적 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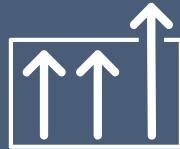
A



시장 매력도

- A1 [Mechanism] 심각한 암구 독성, 간질성 폐질환 등 ADC의 부작용 및 기존 ADC의 내성문제의 심각성
- A2 [L/O 모델] 이에 따라 빅파마의 조기 L/I 사례 다수 존재
- A3 [Valuation] 자본시장의 높은 주목도로 DAC 개발사는 상장 후 시총 2배+ 상승
- A4 [확장성]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로 최근 개발 사례 급증
- A5 [시장 규모] ADC, TPD 시장에 상응하는 \$40B의 잠재 시장 기회

B



차별점

- B1 [독자 기술] 기존 DAC와 달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3중 차단한 Triple-lock
- B2 [DAC Payload 경쟁력] 경쟁사 물질 대비 다양한 암종에서 우수한 활성화로 적응증 확장 및 사업화 용이
- B3 [ADC 내성 극복] 기존 ADC 치료제 (TOPO1) 내성 암세포들에 대한 우수한 효능 검증
- B4 [개발 플랫폼] 후보물질 검증 프로세스와 700개 이상의 후보물질 IP로 구성된 GENO-D 플랫폼

C



Commercial Potential

- C1 [사업모델] 개별 파이프라인 L/O 및 플랫폼 L/O 또한 고려 중
- C2 [파이프라인] 현재 3개 보유 중이며 '28년 이후 L/O 목표, GENO-D 플랫폼을 통한 우수 후보물질 파이프라인화 지속 예정
- C3 [공동연구] 항체개발 전문회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상업화 가속화 기대 (우수한 In vitro 효능 및 PDX 동물 모델 검증)



A1 시장 매력도 – 신규 MOA | DAC는 탑재약물을 TPD로 교체하여 안구 독성, 간질성 폐질환 등의 부작용, 최대 투약용량 한계 등 기존 ADC의 unmet needs를 충족 및 내성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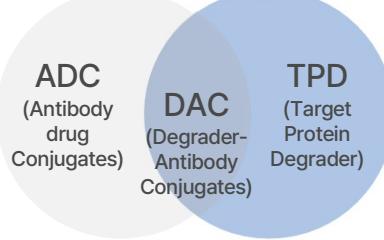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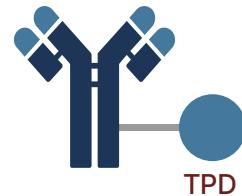
기존 ADC는 여전히 화학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부작용 가능성, 최대 투약 용량에 한계 보유

비선택적 화학약물 기반 ADC

	화학약물 (기존 항암제)	ADC
작용 방식	분열이 빠른 세포를 무차별 공격하여 암세포 사멸 유도	항체가 암세포를 타겟하여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
구조	단독 화학약물	
단점	<p>화학항암 치료 시 80% 이상은 탈모 20% 이상은 패혈증 등의 중증 부작용의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존재</p> <p>강한 항암효과 위해 약물 증량 시 중증 부작용 발생 급증 → 최대 투약 용량에 한계</p>	<p>기존 항암제와 동일한 기전의 화학약물 사용</p> <p>→ ORR (객관적 반응률)은 개선, 그러나 화학약물과 수준의 높은 부작용으로 최대 투약 용량 제한</p> <p>→ 내성 문제 및 안구독성과 같은 안전성 이슈로 인한 신규 기전 차세대 Payload 필요성 증대</p>

DAC는 ADC의 화학약물을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로 대체해 안전성 향상 및 내성문제 해결

DAC 개념도



DAC 장점

优수한 안전성

- 암세포 증식 핵심 단백질 선택적 분해를 통한 항암효과 및 정상세포 부작용 최소화
- 기존 TPD 약물의 전신노출과 달리 항체를 통한 암세포에 표적 배달 → 안전성 확대

용량 대비 약효 우수 (Low dose & High potency)

- TPD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표적 단백질의 지속적인 분해를 통해 암세포 사멸 유도
- 저용량으로도 높은 약효 기대 가능

ADC 내성 환자를 위한 신규 치료옵션

- 기존 ADC Payload인 화학약물과 다른 MOA로 화학약물 내성 암세포에 우수한 효능

1. 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암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단백질 중 하나이나 기존 약물로는 잡기 어려웠던 대표적 undruggable 타깃
Source: 회사 자료



A2 시장 매력도 - L/O 모델 | 높은 확장성으로 빅마파의 DAC 조기 L/I 사례 다수 존재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DAC 자체 개발보다는 조기 L/I를 통해 파이프라인 확보하는 사례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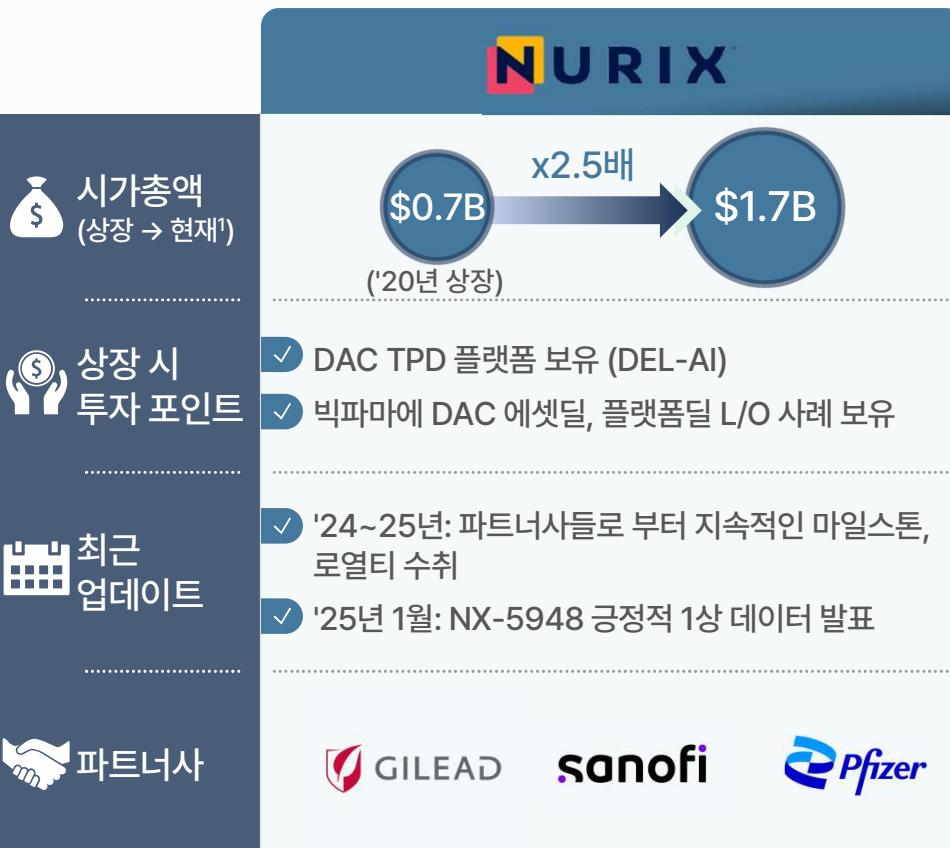
빅마파의 DAC L/I 사례

	Bristol Myers Squibb ORUM THERAPEUTICS	Pfizer NURIX	MERCK c4 Therapeutics	VERTEX ORUM THERAPEUTICS
Licensor				
L/O 시기	2023	2023	2023	2024
파이프라인	ORM-6151	멀티타깃 DAC 포트폴리오 (개별 타깃 비공개)	초기 미공개 종양 표적 DAC (TORPEDO®)	TPD ² ® 기반 DAC (최대 3개 타깃)
적응증	재발/불응성 급성백혈병	고형암/혈액암	비공개	
단계	1상 진행	전임상	전임상	연구/탐색
L/O upfront	\$100M	\$60M	\$10M	\$15M
L/O 총규모	\$180M	\$3,400M	\$2,500M	\$945M
플랫폼 계약 여부	n/a (특정 파이프라인 L/O)	다중 타겟, 다년간 공동 개발	초기 1개 종양 타겟 + 추가 3개 옵션 공동 개발	최대 3개 타겟 개발



A3

시장 매력도 - Valuation | DAC의 확장성, 조기 L/O 가능성에 기반하여 美 FDA 허가 제품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사는 상장되어 거래 중이며 시총 지속 상승



DAC는 탑재약물 (payload)를 타깃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수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해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유망한 기술

DAC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료(마일스톤)를 바탕으로 R&D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 現 오름테라퓨틱 CEO

36 Oscotec Inc.



A4

시장 매력도 - 확장성 | DAC는 높은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 기술로 최근 개발 사례 급증

DAC는 확장성을 가진 두 개의 독립된 모듈로 구성되어
각 모듈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 가능

DAC의 주요 구성 모듈



항체 수 × TPD 탑재약물 수 = 만들 수 있는 최대 DAC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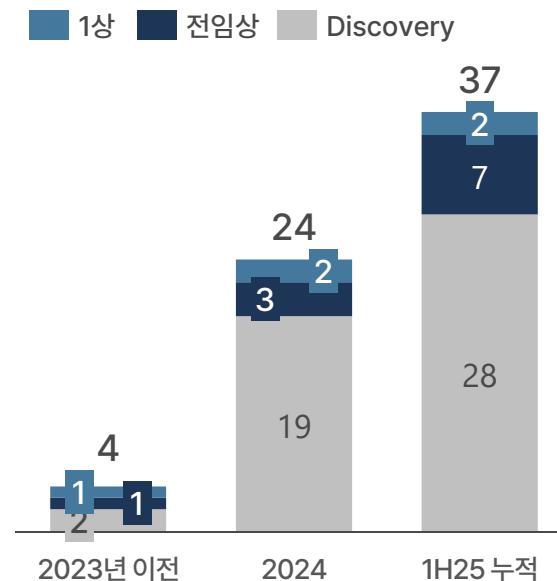
1. Degrader를 탑재약물(Payload)로 하는 ADC (Antibody Drug Conjugates) 개발 건수

Source: ClinicalTrials, 회사 자료, Expert interview

DAC는 플랫폼 확장성에 기반하여
최근 개발 사례 급증

DAC 개발 건수¹

(단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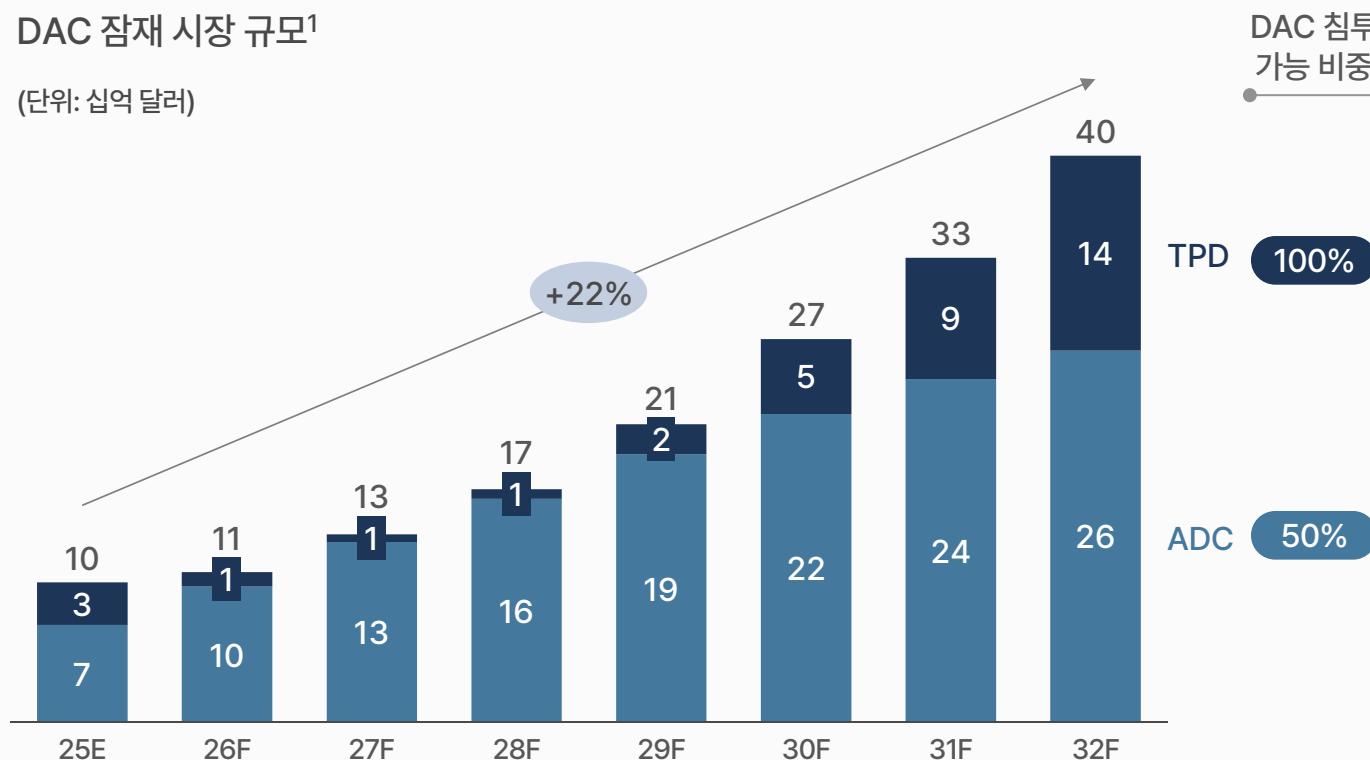




A5

시장 매력도 - 시장 규모 | DAC는 안전성 및 용량 대비 우수한 약효에 기반하여 약 400억 달러 ('32년 기준)에 달하는 기존 ADC, TPD 시장 공략 가능

DAC는 안전성 및 용량 대비 우수한 약효에 기반해
약 400억 달러 ('32년 기준) 수준의 ADC, TPD 시장을 잠재 시장으로 보유



- ✓ [TPD] DAC는 기존 TPD의 한계점인 낮은 암세포 타겟 가능성 (조직 선택성)과 세포 침투율을 개선한 버전의 약물로 TPD 시장 대체 가능
- ✓ [ADC] DAC는 ADC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Topo I 억제제 (암세포 DNA 복제 /증식 억제)²의 내성을 극복 가능하여 Topo I 시장을 우선적으로 침투 가능할 전망

1. Evaluate Pharma 출처; 2. Topo I(Topoisomerase I)는 세포가 DNA를 복제하거나 전사할 때 DNA의 꼬임을 풀어주는 효소로 Topo I 억제제는 이 효소가 자른 DNA를 다시 붙이지 못하게 막아 암세포가 사멸하도록 함

Source: Evaluate Pha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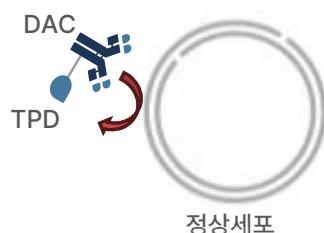
B1 차별점 – 독자 기술 | 1세대 DAC의 미충족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당사의 Triple-lock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DAC 발굴 시도



DAC의 부작용 발생 차단 기술

1세대 DAC Dual targeting

1단계 (정상세포 유입 차단)



- ✓ 항체가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에 결합
→ DAC의 정상세포 유입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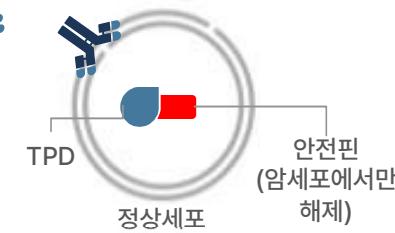
2단계 (비표적 단백질 작용 차단)



- ✓ DAC의 정상세포 유입 시에도 TPD는 표적 단백질만을 분해
→ TPD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음¹
- ✓ 다만 활성화 시 비표적독성²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존재

제노스코 Triple-lock (3중) 안전장치

3단계 (TPD 활성화 차단)



- ✓ TPD 탑재약물(payload)의 활성을 봉인하고 암세포 내에서만 해제되는 안전핀을 부착
→ 정상세포 내에서는 해제가 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추가 방지

✓ 제노스코의 차세대 DAC는 1세대 DAC과 달리 탑재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하는 안전핀을 부착하여, 정상세포에서의 부작용 가능성 (비표적독성)을 대폭 축소

✓ 정상세포 내 DAC의 TPD 약물 작용 가능성을 3중 안전장치 "Triple-lock" 기술을 통한 기존 DAC 대비 안전성 추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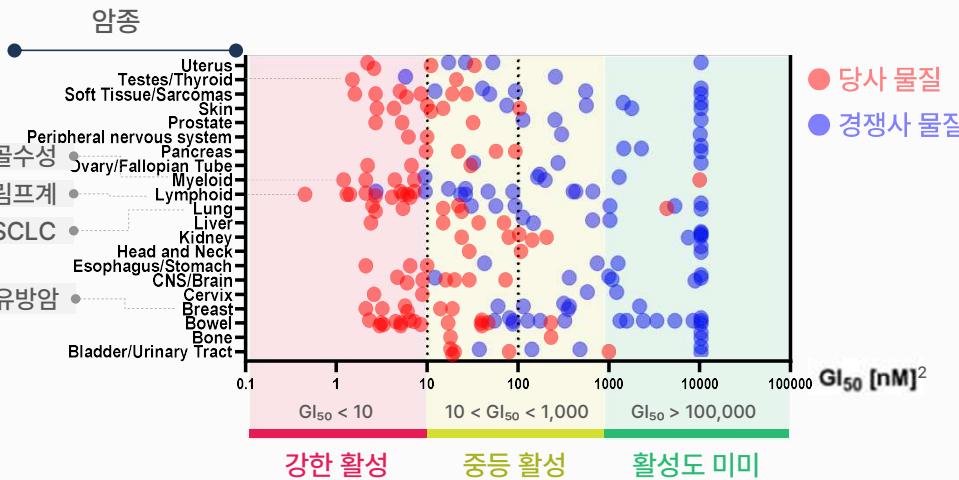
1. ADC의 payload인 화학약물(Cytotoxin)과 비교 시 독성을 띠지 않음; 2. 약물이 의도하지 않은 표적(단백질)과 결합하여 작용 시 발생하는 독성;
Source: 회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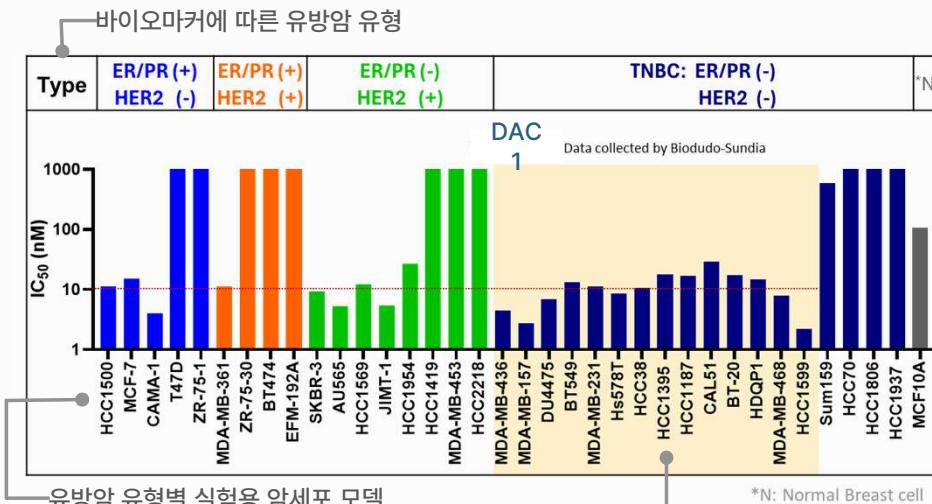
B2

차별점 – DAC Payload | 경쟁사 물질 대비 다양한 암종에서 우수한 활성을 확인하여 적응증 확장 및 사업화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

다양한 암종에 대해 경쟁사 물질 대비 높은 활성¹ 보유 ('24년)



활성이 검증된 여러 암종 중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삼중음성유방암(TNBC³) 대상 PoC⁴ 연구개발 진행 중 ('25년)



- ✓ 대부분의 암종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활성도
- ✓ 특히 림프, 골수, SCLC, 유방암 등에서 강한 활성

- ✓ 제노스코의 DAC payload는 대부분의 TNBC (삼중음성유방암) 세포주에서 강한 활성 (IC₅₀ < 10nM)을 보임

1.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과의 결합력 및 분해력을 의미하며, 강한 활성도를 뛸 수록 약효가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 2. Growth Inhibition 50%, Inhibitory Concentration 50% (세포 증식을 50% 억제하는데 필요한 약물 농도로 높을 수록 약효가 강함을 의미), 3.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4. Proof of Concept (신약 개발 시 치료효과/약효가 있는지 개념적으로 증명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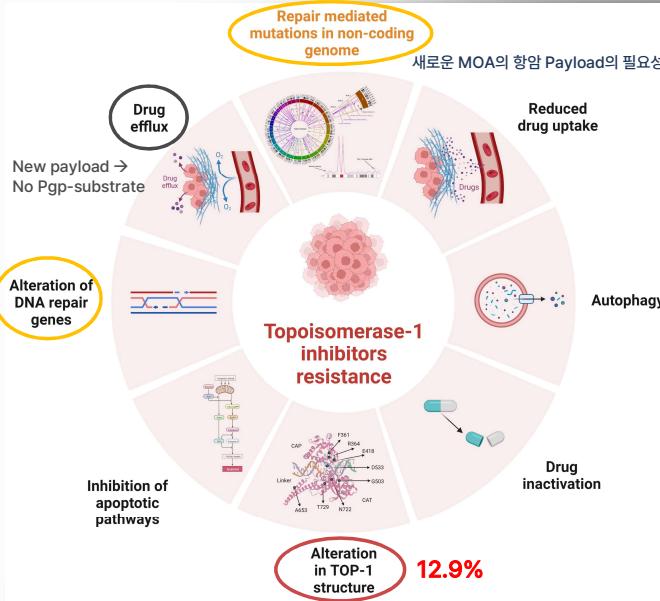
Source: 회사자료, ONCOLINES B.V. (Tumor high-throughput screening 전문 CRO), Bioduro-Sundia (글로벌 C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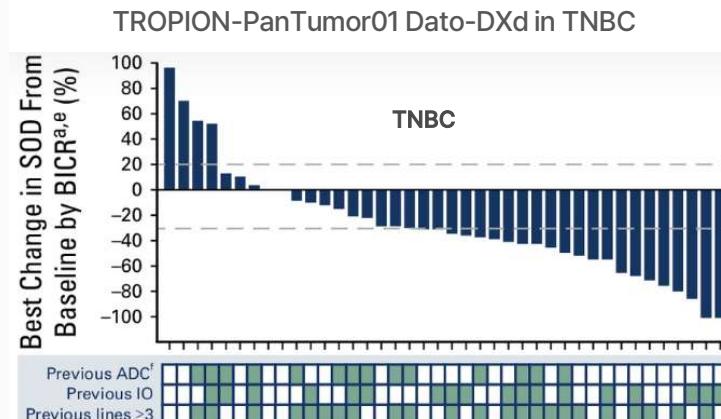
B3

차별점 – ADC 내성 극복 | 기존 ADC 치료제 (TOPO1i) 내성 암세포들에 대한 우수한 효능 검증 → 차세대 Payload로써 ADC 업계에서 주목

TOPO1i에 대한 내성 및 MOA



TOPO1i 내성의 심각성 → 임상 효능 저하



JIMT1¹: Enhertu 내성 암세포

	IC ₅₀ (nM)
GNS-DAC (GNS-6839)	7.8
Enhertu	>300
Reference -DAC	>300

- TOPO1i 자체의 내성 돌연변이 (13%)
- TOPO1i의 함암 MOA를 회피
- Payload의 70%를 차지하는 TOPO1i를 대체할 신규 MOA의 Payload 발굴이 절실

- Topo1-Naïve Patients ORR: 40% (12/30)
- Prior Topo1 ADC Patient ORR: 15% (2/14)

- GNS Payload (MGD)의 우수한 활성
- 혁신 Payload의 도입을 통한 기존 ADC 내성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및 새로운 방향성 제시

1. JIMT1 cell: HER2+ Breast cancer이며 Topoisomerase1 amplification을 통해 내성 발생
Source: 회사 자료



B4

차별점 - 제노스코 플랫폼 | Lazertinib과 GNS-3545 개발의 근간이 된 GENO-K 플랫폼의 핵심 역량에 TPD 기술을 융합하여 GENO-D 플랫폼 구축

GENO-K는 Kinase 억제제 신약을 발굴
가능한 플랫폼으로 시장 내 기술력을 검증 받음

GENO-K 구성 요소 및 성과

GENO-K PDB¹

Kinase³ (표적단백질) 별 구조적
특이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 Kinase 별 특성 분석 (질병 유발 신호 조절 기능)
- Kinase 별 고유의 구조적 특이성⁴ 파악 (표적 kinase만 공격 가능)

GENO-K LDB²

Kinase를 억제하기 위해
최적화된 약물 후보군

- Kinase의 구조적 특이점에 상응하여 결합 가능한 골격의 화합물 6,000여 종
- Kinase의 3D 입체 구조를 분석하여 화합물 구조 설계

Lazertinib
상업화

2024년 KRX 기술
평가등급 AA⁵

GNS-3545
1상 진입

검증된 GENO-K의 핵심 역량을 TPD 기술과 융합하여
GENO-D 플랫폼 구축

GENO-D로 치환 가능한 GENO-K 핵심 역량

GENO-K 핵심 역량

표적 단백질 고유의
구조적 특이성 파악
(희귀 서열 기반 표적 분석)

표적 단백질의 3D 입체 구조를 분석한
화합물 구조 설계

6,000개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GENO-D 적용 가능 요소

표적 단백질에서 화합물이 결합하기
용이한 도메인 탐색 및 발굴

분해할 표적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분석하여 TPD 화합물 설계

GENO-K 라이브러리 활용하여
TPD 화합물 설계 가능 + 독창적
MGD (700여 종)

1. Protein Data Base; 2. Library Data Base; 3. Kinase는 단백질에 인산기를 전달하여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백질 효소이며, Kinase 저해제는 세포 신호 전달을 막아 염증,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활용됨; 4. 모든 Kinase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약점(APT 결합 부위)이 아닌 개별 Kinase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약점 (희귀 서열); 5. 기술평가는 AAA~D의 열 가지 등급이 있으며 AA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기술력이 동종기업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 AA이상은 전체의 6% 미만으로 매우 드묾

Source: 회사 자료



c Commercial Potential | 현재 3개의 파이프라인 보유 중이며 2028년 이후 L/O 목표, 추후 GENO-D 플랫폼을 활용 우수 후보물질 도출로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 계획

C1 사업 모델		
파이프 라인 L/O	DAC 후보물질 탑재약물 - linker - 항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는 개발 물질을 전임상 ~ IND¹ 시점 L/O 1~3상 임상은 파트너사가 진행
기술 플랫폼 L/O	DAC 탑재약물 플랫폼 라이브러리 A B C D ... + 검증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는 플랫폼 제공 파트너사는 플랫폼 상 탑재약물 기반 DAC 연구개발 진행 <p>• 전임상 ~ IND 승인 시점 조기 L/O 고려</p> <p>• 파이프라인 & 기술 플랫폼 모두 L/O 고려</p>

C2 보유 파이프라인					
	적응증	Modality	현 개발 단계	라이선스 아웃 목표 시점	잠재 파트너사
DAC1	TNBC				글로벌 바이오텍과 논의 중
DAC2	SCLC	DAC-TPD	DAC Optimization ²	2028년 이후	글로벌 MNC 고려 중
DAC3	Prostate Cancer/ HCC				글로벌 바이오텍 고려 중
PKMYT	Ovarian Cancer, Pancreatic Cancer	Degrader	Degrader Optimization		
:	GENO-D 플랫폼을 통한 자체 R&D로 추가 파이프라인 지속 확보 계획				
현 보유 파이프라인은 2028년 이후 L/O를 목표로 하며, 플랫폼 L/O 또한 고려 중 GENO-D 플랫폼을 활용, 우수 후보물질을 도출해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 계획					

1. Investigational New Drug로 FDA에 제출하는 임상 1상 승인 신청서; 2. DAC의 탑재약물 후보물질이 최적화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DAC 구성 요소인 항체 (특정 암세포 타겟 가능)와 Linker (탑재약물과 항체를 연결)와 조합을 최적화 하는 단계

Source: 회사자료

Agenda

1 미래 비전 및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계획

3 향후 운영 모델 변화

4 주주 동반 성장을 위한 회사의 commitment

자본 배분 정책 지향점 |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 매출을 통해 R&D 비용을 충당하며, R&D 투자도 2배 이상으로 확대, 성장 사이클을 가속화



1

재무적 Self-Sustainability 지속



Lazertinib, ADEL-Y01을 위시한 수익실현 본격화
통해 재무적 자립 달성



과거 지속적 연구비 지출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유상증자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재무구조 달성

2

R&D 투자 2배 증가로 성장모멘텀 가속화



과거 3개년 대비 향후 3개년 R&D 투자는 보수적
수익 전망 기준으로도 2배 이상 증가, 성장성 및
수익실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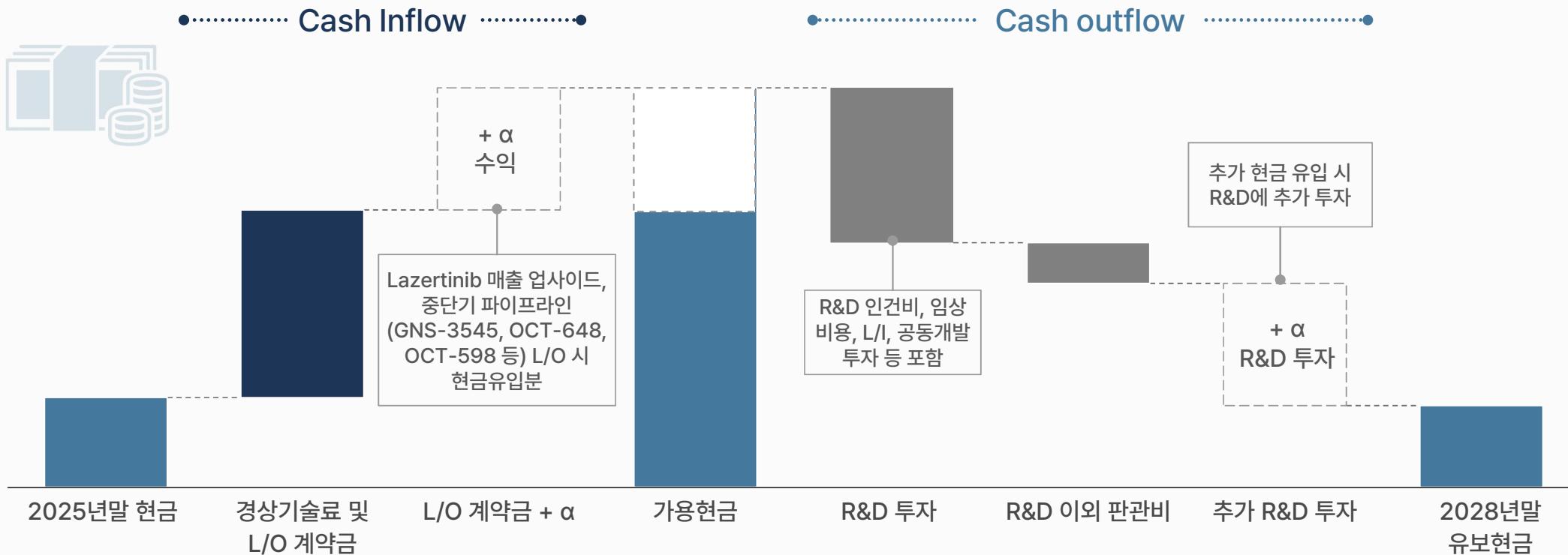
레이저티닙 로열티가 당사 보수적 추정치 대비
상회하거나, 타물질 L/O로 수익 발생시 R&D
투자 가능 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 가능



1

미래 자본 배분 정책 | 과거 3개년 대비 2배 이상의 R&D 투자 예정이며, Self-sustainable한 수준으로 자본관리

Cash flow 전망 (2026E-2028E, 양사합산)



Source: 회사자료

Agenda

1 미래 비전 및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계획

3 향후 운영 모델 변화

4 주주 동반 성장을 위한 회사의 commitment



향후 운영 방안 핵심 내용

1



운영 모델

전문성은 유지하고, 운영은 통합하는
'Dual-Hub 모델' 구축

2



R&D 경쟁력 강화

레이저티닙·아델의 성공 방정식 계승,
R&D 인력 1.5배 확장

3



상업화 역량 강화

글로벌 KOL 네트워크로
'상업화 역량이 한층 강화된
개발사'로의 전환



① 운영 방안 | R&D는 양사 전문 역량 유지하고, 운영은 통합하는 'Dual-Hub 모델'로 전사 비용·운영 효율 극대화



운영 모델 의의

- 1 양사의 R&D 전문성 유지 및 통합 운영 기반 비용 효율 극대화
- 2 역할 중복 줄여, 실행력과 조직 민첩성 동시 강화
- 3 한국은 비용 경쟁력 높은 임상 허브, 미국은 글로벌 BD 중심지로 기능



2

R&D 리더쉽 | 레이저티닙·아델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시킨 핵심 R&D 리더십들의 성공 방식을 계승해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1/2)



윤태영
대표이사, R&D 총괄
(2020년 입사)

- 학력
- Yale University 화학 박사
 - 서울대학교 화학 석사



곽영신
부사장, R&D 연구소장
(2025년 입사)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기화학 박사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석사



정영준
전무이사, 양사 R&D CMC 팀장
(2023년 입사)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유기화학 박사
- 서울대학교 유기화학 석사



심혜석
상무이사, R&D 전략 팀장
(2025년 입사)

- Harvard University 생명과학 박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생명공학 석사



정동식 이사
(1999년 입사)

- 단국대학교 약리학 박사

주요 경력

- 동아에스티 연구본부장
- Novartis, Sr. Research Investigator
- Neurogen, Senior Research Fellow

- 종근당 신약연구소장(전무)
- LG화학 수석연구위원(상무)
-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Novartis, Research Investigator

- Director, Mersana Therapeutics
- Director, Akebia Therapeutic
- Associate Director, Zafgen Inc

- Associate Director, Odyssey Therapeutics
- Senior Scientist, Volastra Therapeutics
- Senior Scientist, Petra Pharma

- Team Leader, CMC Team, Oscotec
- Team Leader, Drug Evaluation Team, Oscotec

주요 R&D 실적

- ADEL-Y01 도입 및 글로벌 기술 이전 트랙 마련
- FIC 면역 항암제 MerTK 저해제 개발 & L/O
- CRF1R, DGAT1 등 20여개 FIC 과제 참여

- A2AR·BRCA 합성치사 기반 내성 극복 항암제 개발
- 1.7조원 규모 기술 수출 주도 (CKD-510, HDAC6 억제제)

- HCV 억제제·HIR 신약 제조 공정 개발 및 스케일업 총괄
- ADC 페이로드·링커 등 공정·생산·규제 대응 경험 多

- 내성 보상 경로 타깃 CDK2 표적 항암제 개발
- 내성 제어를 위한 염색체 불안정성 억제 항암제 개발

- Lazertinib 원천기술 핵심 물질 공동 특허 발명
- PK/PD 및 독성 평가 기반 비임상 전략 총괄



2

R&D 리더쉽 | 레이저티닙·아델 등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시킨 핵심 R&D 리더십들의 성공 방식을 계승해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2/2)



고종성
대표이사, R&D 총괄
(2008년 입사)

- Caltech 생물유기화학박사
- 카이스트 광유기화학 석사



김세원
대표이사, 경영 총괄
(오스코텍 1998년,
제노스코 2015년 입사)

- 서울대학교 약리학 박사
- 서울대학교 약리학 석사



이재규
R&D Chemistry 부문 이사
(2009년 입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유기의약화학 박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유기화학 석사



Anu Gupta
R&D Biology 부문 이사
(2021년 입사)

- Jawaharlal Nehru University 생명과학 박사
- Guru Nanak Dev. University 생물학 석사

학력

주요 경력

주요 R&D 실적

- 한국화학연구원 항암센터 센터장
- LG 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 UC Berkeley 초빙연구원
- LG 화학 책임연구원
-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 단국대학교 약리학 교수
- School of Dental Medicine-Guest Lecturer, Harvard University
- Research Fellow, Orthopedic Research

- Associate Director, CreaGen Biosciences
- Principal Scientist, ArQuule
- Senior Researcher,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 Associate Director, Black Diamond Therapeutics
- Principal Investigator, Deciphera Pharmaceutical
- Research Scientist, Cleveland Clinic Lerner College of Medicine

- 렉라자 개발 및 L/O
- DPP4 억제 국내 최초 당뇨 신약 제미글로 개발
- FGFR4, SYK 억제제 개발
- 4세대 EGFR 개발 및 L/O

- FDA IND Filing (1상 7개, 2상 2개)
- SYK, FLT3 억제제 개발 및 임상시험 총괄
- 류마티스 등 면역 타깃 신약 관련 다수 특허 보유

- 렉라자 개발
- ROCK2 억제제 개발
- FGFR4, SYK, FLT3 억제제 개발

- 다종 kinase 억제제(Ripretinib 기반 등) 및 병용요법 연구
- 전신비만세포증(GIST·SM 등) 관련 다수의 특허 및 연구성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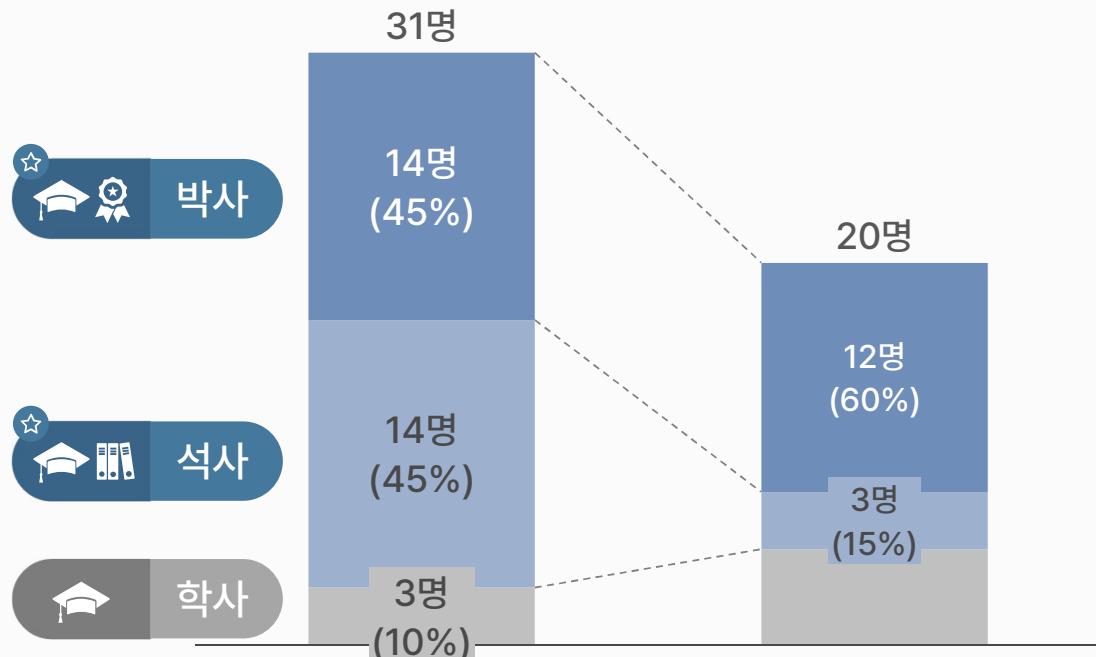
2

R&D 인력 확장| R&D 인력을 1.5배 이상 확장하여, 연구 속도와 생산성 동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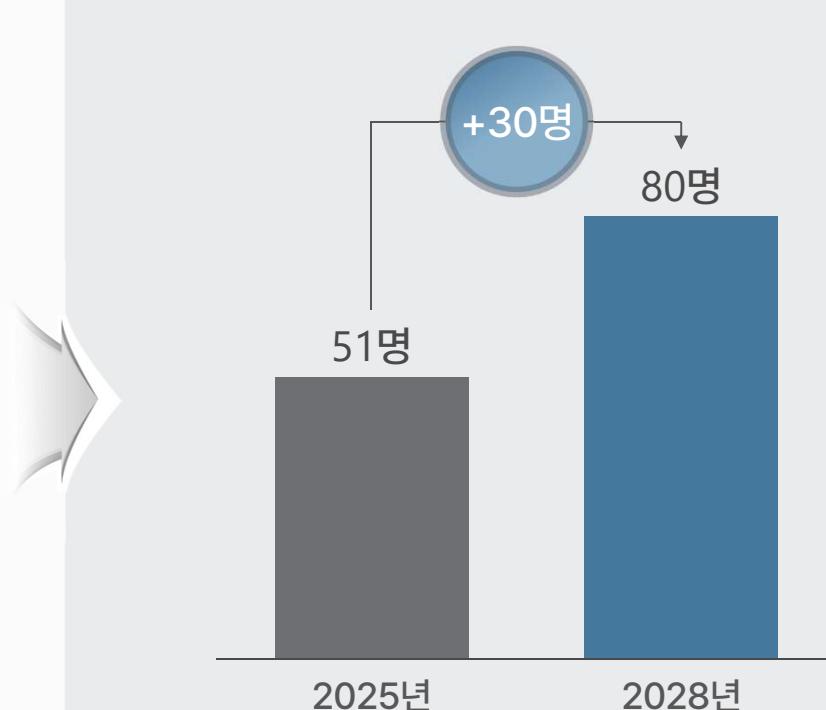
석·박사 중심의 고급 인력을 기반으로, '28년까지 30명 이상의 전문 R&D 인력들 추가 채용 예정



오스코텍·제노스코 R&D 인력 현황



향후 양사 R&D 인력



Source: 회사 자료

핵심 인력의 연속성과 신규 인재의 확장을 결합해
더욱 강력한 기술 조직으로 도약할 전망

Agenda

1 미래 비전 및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계획

3 향후 운영 모델 변화

4 주주 동반 성장을 위한 회사의 commitment



주주 동반 성장 위한 commitment 핵심 내용



1

거버넌스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강화로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구조' 구축



2

보상 체계

성과 중심·주주가치 중심의
인센티브로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체계 구축



3

시장 소통

기관·개인투자자를 아우르는
폭넓은 IR로 '열린 기업' 구축



1

거버넌스 개선 | 이사회 규모 및 체계 개선 통해 경영진 보완 및 견제장치 마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중심의 견제·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지배구조 신뢰도 제고



이사회 확대 및 사외이사 확충 통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체계 확립

- ✓ 사외이사 증원으로 이사회 규모 점진 확대(사외이사 과반 확보 추진)
- ✓ 이사회 역할을 형식적 승인 아닌 "주요 경영 판단" 중심으로 전환
- ✓ 정보 접근성, 자료 공유의 표준화를 통해 미비했던 이사회 운영·관리 기능 강화



위원회 신설로 경영진 견제, 감독 기능 제도적 강화

- ✓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로 견제 및 감독기능 강화
- ✓ 감사위원회 신설 추진, 감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 보상위원회 도입으로 공정, 투명한 보상체계 구축
- ✓ 독립 사외이사 특별위원회 신설 및 한시적 운영 통해 자회사 가치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 공정성 강화



2 보상체계 개선 | 회사와 주주가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는 보상체계 수립



보상을 회사 성과와 주주가치에
직접 연동하는 구조로 재편



구성원이 주주처럼 생각하며,
성과창출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

- ✓ 기본급 초과 보상은 성과달성을 조건부 (스톡옵션, 현금보너스, RSU 등)로 지급되도록 설계
- ✓ 보상을 성과 달성을 수준에 연동하며, 경영진 포함 임직원 전반에 **일관된 보상철학** 적용
- ✓ 평가체계 개선 통해 보상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강화 및 제도화

- ✓ 장기 보유 유도하는 주식 기반 보상으로 회사 구성원들이 주주와 동일한 목표·지향점 보유
- ✓ 평가-보상-성장 구조로 성과 기반 조직 신뢰 강화
- ✓ 주식기반 보상의 경우 **장기 근속 유도하는 베스팅** 구조로 성과에 대한 책임감 및 주인의식 함양



3

소통 개선 |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IR communication 및 네트워크 강화

총체적 소통
개선

다양한 투자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정기적/지속적 커뮤니케이션

- ✓ **Investor Day (1~2년 주기), R&D day (연 1회)** 통해 중장기 로드맵 및 단기 전략방향성 공유하며, L/O 시 수시 NDR로 관련정보 및 차기 L/O 관련 소통
- ✓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전문투자자 니즈를 충족하는 전문성 보유한 자료 기반 활발한 소통 및 주기적 follow-up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정기적,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회사의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

해외 투자자
유치

해외 기관투자자 풀에 대한 체계적 IR 진행

- ✓ 영문 IR자료 제공 및 해외 IR행사 적극 추진
- ✓ 북미 및 홍콩/싱가폴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펀드매니저 대상 타겟형 NDR 추진

IR 범위를 기관에서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해
시장과 폭넓게 소통

Medical
community
network 강화

의료계 및 제약/바이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 국내외 주요 학회 및 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크 강화 (e.g.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 분야별 핵심 KOL 그룹 구성 및 정기 scientific exchange 운영

모든 주주가 정보를
공정하게 얻을 수 있는
"오픈 컴퍼니 (Open
Company)"로의 진화

개인투자자
포용성 확대

중요한 IR 대상인 개인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 ✓ R&D Day, Investor Day 등 주요 행사는 YouTube Live 진행 및 녹화본 업로드
- ✓ 당사 기술 및 FAQ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개인투자자용 digest자료 정례 발행

Glossary (1/3)

분류	용어	영문 풀네임	정의
Lazertinib 관련	OS	Overall Survival	전체 생존기간(진단 또는 치료 시작 후 사망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임상 지표
	SC	Subcutaneous formulation	피하(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제형 또는 투여 방식
GNS-3545 관련	ROCK2	Rho-associated coiled-coil containing protein kinase 2	섬유모세포 활성화 핵심 효소
	IPF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특발성 폐섬유증; 명확한 원인 없이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진행성 섬유화 질환
	OSMR β	Oncostatin M receptor β	섬유화·염증 관련 수용체
	MCSF1R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1 receptor	면역세포 신호·섬유화 연관 타깃
	COL1A1	Collagen type I alpha 1	섬유화 시 과다 축적되는 콜라겐 단백질
	PAH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폐동맥 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폐동맥고혈압
	MASH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 이상 연관 지방간염(기존 NASH 명칭 대체 추세)
OCT-648 관련	NLRP3	Nucleotide-binding oligomerization domain-like receptor family, pyrin domain-containing 3	염증성 사이토카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주요 인플라마솜 단백질
내성항암제 관련	EP2/4	Prostaglandin E Receptors 2 & 4	Prostaglandin 신호를 매개해 종양 미세환경에서 면역억제 작용을 만드는 수용체
	NUACK1/2	NUAK family kinase1/2	암세포 생존, 전이, 대사 스트레스 적응 등에 관여하는 효소

Glossary (2/3)

분류	용어	영문 풀네임	정의
항내성 항암제 관련	SoC	Standard of Care	해당 질환에서 현재 의료계가 인정한 표준 치료법
	NSCLC	Non small cell lung cancer	폐암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선암, 편평상피암 등이 포함되는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린 폐암
	SCLC	Small cell lung cancer	세포 크기가 작고 증식 및 전이가 매우 빠른 고악성 폐암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 암센터 네트워크로,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단체
	mPFS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	치료를 시작한 이후 암이 다시 커지거나 악화되지 않고 약효가 유지되는 기간의 중앙값
	FIC	First in class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기전을 가진 신약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세포 성장 신호를 조절하며, 여러 암에서 과활성화 되는 수용체
	HER3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3	유방암·위암 등에서 과발현되는 성장인자 수용체, 대표 표적항원
	CDH6	Cadherin-6	세포간 접착 및 조직 발달에 관여하며 일부 암종에서 발현이 증가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의약품·의료기기·식품·백신 등의 허가·안전성·유효성을 규제·관리하는 기관
DAC 관련	ADC	Antibody–Drug Conjugate	항체-화학약물 결합 항암제
	TPD	Target Protein Degradation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 기전

Glossary (3/3)

분류	용어	영문 풀네임	정의
DAC 관련	DAC	Degrader-Antibody Conjugate	항체-분해약물접합체; 항체+단백질분해제로 이루어진 차세대 항암제
	Payload	Payload	항체 기반 치료제에서 세포 내부 전달 약물
	GSPT1	G1 to S phase transition 1	세포 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TPD 기반 항암제 타깃으로 개발 중
	Topo I 억제제	Topoisomerase I inhibitor	DNA의 꼬임을 풀어주는 Topo I를 억제해 DNA 복제를 방해하는 항암제
	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유방암·위암 등에서 과발현되는 성장인자 수용체, 대표 표적항원
	TROP2	Trophoblast cell surface antigen 2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막단백질, ADC 타깃으로 활용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비소세포폐암 등에서 변이가 흔한 세포 표면 성장인자 수용체
	PD-L1	Programmed Death-Ligand 1	면역 체크포인트로 면역 회피에 관여하는 리간드, 면역항암제 타깃
	간질성 폐질환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폐포와 간질에 염증·섬유화가 생기는 다양한 폐질환군
	안구 독성	Ocular toxicity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 저하, 망막·각막 손상 등 눈 관련 부작용
기타	MNC	Multi national company	다국적 회사



Translating Science into Medicine

